

원양산업

제 1130 호

(2021년 2월 15일 발간)

창간 :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 (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2021년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선박 수요조사 실시/
- 제9차 SPRFMO 연례회의 개최 5/
- 협회 2021년도 정기총회 코로나19로 서면 결의 추진 /

■ 협회 1월 주요 업무 추진 동향 6/

■ 오징어 요리 만들기 4/

(오징어 야채덮밥)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21년 1월 보고 내용 15/



해외수산정보

■ 참치어업 동향

- 참치 오메가3, 청소년기 천식 감소에 도움 될 수 있나/
- 도요스 시장 참치 「매출 적고 가격 하락」 이증교 2 /
- 방콕 가다랑어 거래, 얼어붙어 4/
- 낮은 어획량 & EU 수요, 만타 어가 높은 수준 유해/

- NGO, PNA의 FAD MSC 인증 확보 시도에 이의 제기
- 태국, 2020년 참치 수입량 12% 증가 8/
- 2020년 4분기 태국 참치캔 수출 금감 7/
- 컨테이너 부족으로 캔 가공업자 비용 급증 82
- 세이셸, 민간 산업을 위한 어류 가공 구역 확정 82

■ 오징어어업 동향

- 日 신선 오징어 2020년 11월 어획 40% 감소한 3,800톤
- 일부 스페인 어선, 코로나로 포클랜드 출항 지연 92
- 타이 유니온, 참치빠로 만든 참치 분말 출시 03
- 아르헨티나 채낀기선, 오징어 조업 시즌 시작 03
- 중국 불법 오징어 조업 북한 수역에서 감축 13
- 포클랜드, ITQ 관련 제도 변경 추진 23

■ 명태어업 동향

- 러 명태어업자협회 및 회원사, 경쟁 위반 혐의 35
- 러시아 어업 회사 NBAMR, Okeanrybflot 합병 소식 33
- 日本水産 봄·여름 신상품, 생선 파워를 활용 43
- 러시아, 미국 A시즌 조업 시작 5/
- RFC, 중국과 일본으로 명태 필렛 수출 확대 63
- 러시아 2020년 어획량 전년 대비 1% 증가한 497만톤 63

Contents

■ 콩치어업 동향

- NPFC 콩치 관리 강화 논의 78
- 마루하니 치로 콩치 통조림 가격 인상 79

■ 일본 수산 동향

- 2020년 일본 해산물 지출액 5% 증가 83
- 일본 2020년 수산 수출액 코로나로 20% 감소 83
- [결산] 日本水産, 매출 감소, 이익 감소 93
- 일본 유력 양관점, '빠없는 생선' '스시' 강화 93
- [결산] 極洋 매출 감소 이익 증가 94
- 일본 수산물 재고 통계(20년 11월말 현재) 94
- 일본, 정부 중점 연구 후보로 해양 자원 개발 14
- 日 생 미끼용 고등어 90 엔, 고가권 유지 14
- 일본 수산청 TAC 7개 어종 새로운 관리 24
- 「시푸드 쇼 오사카」 행사 연기 24
- 태국 일식 신규 점포 최다 24
- 일본 어패류 수입 200만톤 이하로 떨어져 34
- 日 수산가공품 정책 반찬과 센터 가공 강화 최다 44
- 일본 마루베니, 수산부 폐지, 4월 1일 기구 개혁 44
- 실크 아이스로 선어 유통 혁명, 선도 유지에 니코 '해빙' 44
- 식품 이물질 판별 AI로 가능 44

■ 각국 수산 동향

- 아이슬란드 어류 쿼터 12만 7천톤 64
- Russian Fishery Company, 디지털선박운영센터 개설 64
- 포클랜드 선사, 신조선 Falcon호 인수 74
- 알래스카만 대구 어업 MSC 인증 재획득 74
- 아르헨티나 붉은 새우 2020년 20% 감소 84
- 영국, 포클랜드에 백신 공급 84
- 노르웨이 최초의 원양 양식 신청 94
- 미국 새우 수입 20년 11월 전년 수준 6.7만톤 95
- 스웨덴 유럽 최대의 육상 양식 시설 95

■ 쉬어가는 난 (詩)

- 바다는 <용혜원> 15

■ 국내 수산 뉴스

- 해양 수산 산업 사업화 신규과제 공모 25
- 2020년 연근해 어업생산량 전년보다 1.9% 늘어 35
- 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35
- 지난해 세계 해적사건 20% 증가 45
- 미래산업 선도할 '예비 오션스타 기업'은 바로 우리 45
- 바닷속 고등어, 오징어 최첨단 장비로 파악 55
- 해수부, 설 물가안정 위해 수산물 10,879톤 공급 55
- 자원회복 위해 오징어를 정해진 만큼만 잡아주세요 55
- 2021년 근해어선 감척 대상 업종 확대 75

2021년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선박 수요조사 실시

우리 협회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알려움에 따라 2월 4일부터 2월 15일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선박의 신청을 받고 있다.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장기간 운항하는 원양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도 위성통신을 통해 언제든지 의사의 응급처치 지도 및 건강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육상과 달리 먼 바다에서는 응급상황 발생 시에도 119 등의 조속한 도움을 받거나 병원으로 바로 이송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응급상황 발생 초기에 적절한 의사 자문을 받기 어렵다.

해양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대상 선박은 인공위성과 연결된 심전도 측정 장비와 검이경, 청진기 등 원격진료 장비를 지원 받아 설치하여 부산대병원의 해양 원격의료센터와 위성통신으로 건강 상담과 응급조치를 실시간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선원 2,391명에 대해 총 11,434건(정

기 건강 상담 10,405건, 원격의료 자문 1,029건)의 해양원격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한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동 사업을 운영하여 현재 100척(상선 84척, 원양어선 14척, 과학선 2척)에 해양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로 20척을 추가 지정해 총 120척에 의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대상 선박의 기본 조건은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으로 국적선 및 국적 취득부 나용선으로 해양원격의료셋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일정 통신환경이 갖춰져야 하며 국내에 입항하는 선박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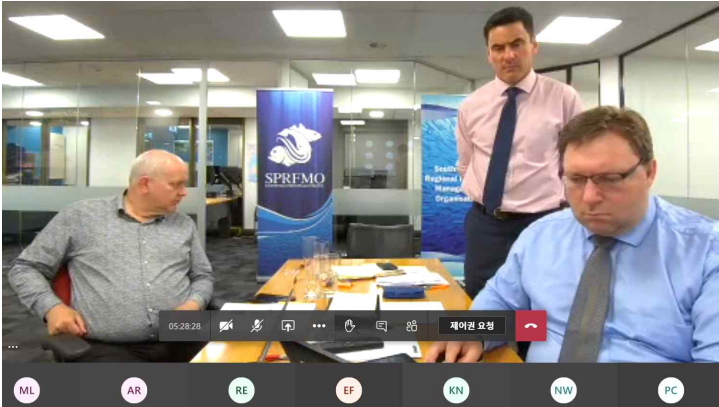
선박 선정 시 우선 선정 조건은 국적선원이 많은 선박과 기존 참여 선박이 없는 신규 선사의 선박이다.

우리 협회는 회원사의 신청을 받아 취합하여 2월 17일까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제출할 계획이다.

회원사 주소·연락처 변경

회 사	변 경 전	변 경 후
성경수산(주)	박희섭 대표이사	박삼암 대표이사

제9차 SPRFMO 연례회의 개최 전쟁이 TAC 15% 증가



제9차 SPRFMO 연례회의가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SPRFMO는 남태평양 공해에 서식하는 전쟁이 등 비참치어종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2012년 설립된 국제수산기구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8월 24일 가입했다.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보존조치 17개 제안서 제·개정이 논의되었고 이중 11개 제안서가 채택되었

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중요한 2021년도 전쟁이 총허용어획량(TAC)은 과학위원회 권고에 따라 전년보다 10만 2,000톤 증가한 78만 2천톤으로 결정되었다. 우리나라 쿼터는 배정비율이 1.28%로 1만톤 가량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사무국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 중으로 공식적인 수치는 추후 공식될 예정이다.

아울러, 선박 호출부호(콜사인) 등 선박 마킹 및 식별 조치가 개정되었으며, 항만국 검색 조치 검색율을 기존 5%에서 50%로 상향하기로 했다.

대왕오징어 어획노력량(실조업선 총톤수 기준) 제한 및 대왕오징어 해상전재금지(입항 전제 의무)는 회원국별 이견이 많아 채택되지 않았으나 올해 회기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협회 2021년도 정기총회 코로나19로 서면 결의 추진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서면 심의

우리 협회는 오는 2월 25일에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정기 총회 의결사항을 서면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협회는 당초 이날 202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

결의로 대체했다.

협회는 사전에 각 안건을 서면으로 회원사들에게 알리고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지난해 사업실적 보고 및 결산을 의결하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

협회 1월 주요 업무 추진 동향

경영지원본부

기획총무부

- 회장단 간담회 후속 TF팀 화상회의 개최
 - 일시/장소 : '21.1.13, 15:00 / 대회의실(화상)
 - 참석자 : 협회 회장단사 본부장
 - 내용 : (가칭)원양산업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협의
- '21.1월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위원회 개최
 - 일자/장소 : '21.1.15 / 협회
 - 참석자 : 운영위원회 위원(6인)
 - 내용 : 2척 21.70억원 원안의결
- 선원 인권교육 동영상 제작 및 배포(1.20/업계)
 - 협회 TF팀 후속조치로 선원인권환경 중시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용 동영상 "존중과 배려 바다 위에 인권!"(USB)제작 우편송부
 - ※ 교육동영상은 유튜브에서 시청 가능
- 2022년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참석
 - 일시/장소 : '21.1.27, 14:00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외협력본부장
 - 내용 : 일자리창출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2022년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 논의
- 2021년 정기총회 대비 관련 업무추진
 - 2020년 주요업무보고서,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작성 및 인쇄의뢰
- 2020년도 해외수산협력센터 직원 직무평가서 제출(1.14)
 - 평가대상 : 협력센터 직원 7명
 - 주요내용 : 동 센터 직원 수행능력, 종합평가 등
- 회원사 변경사항 안내(전화원사)
 - 성경수산 대표이사 변경
 - 대표이사 : 박희섭 ⇒ 박삼암
 - * 아시아냉장(주) 대표이사(현)
- '20. 12월분 업종별회비 부과 추진
- 제26회 바다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대상자 추천
 - 장관 표창 추천자(2인)
 - 동원수산 기관장, 신라교역 선장
-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2021년도 제1차 이사회 서면의결서 제출
 - 제7기 결산보고서(안) 서면결의서 찬성 제출
- 부경대학교 우수졸업생 협회장명의 상장 및 부상 전수조치
 - 학위수여 일시/장소 : '21.2.19 / 부경대학교
 - 포상 : 표창장 및 부상
- 회원 자동제명
 - 회사명 : (주)해나
 - 자동제명일 : 2021.2.1
 - 사유 : 폐업
- '20.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초세무서)
- '21. 1월분 임직원 원천세 신고(서초세무서)

회원지원부

- 케이프타운 협약 도입을 위한 최종보고회 참석
 - 일시/장소 : '21.1.13, 14: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원양산업과 담당사무관 외, KOMSA, 한국선급, 원양업계 / 회원지원부 이사 및 과장
 - 내용 : 우리나라 어선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법 관련제도 등 협의
-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 관련 업무협의회 참석
 - 일시/장소 : '21.1.20, 16:00 / 협회
 - 참석자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박태건 교수 외 / 회원지원부 이사 및 과장
 - 내용 : 안전관리지침 작성에 필요한 사항 협의
- IMO 제7차 인적요소, 훈련 및 당직전문위원회 관련 업무추진
 - 가. 해수부와 사전 협의
 - 일시/장소 : '21.1.7, 14: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선원정책과 / 회원지원부 부장
 - 내용 : STCW-F(어선원 훈련, 자격증명 등에 대한 국제협약) 검토
 - 나. 대응을 위한 사전대책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1.21, 13:3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해양수산연수원, 해양대, 한국선급, 선원노련, 수협중앙회 등 / 회원지원부 부장
 - 내용 : IMO 제7차 훈령안 및 발언문 검토
- 외국인선원 편승하선 관련 회의참석
 - 일시/장소 : '21.1.22, 10:00 / 원양노조
 - 참석자 : 원양노조, 동원산업, 사조산업, 신라교역, 한성기업 / 회원지원부 이사
 - 내용 : 외국인선원 편승하선 관련 업무협의
- 제438차 선급위원회 서면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1.28 / 서면
 - 참석자 : 선급위원 / 이전무
 - 내용 : '20.12.14~'21.1.24까지 선박 심의/보고 등
- 외국인선원 관련 업무추진
 - 가. 외국인선원 근로조건개선 이행점검 관련 업무추진
 -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내용 이행여부 점검 및 관련제출 요청(회원사/1.29, 2.1)
 - 나. 2020년말 외국인선원 고용현황자료 제출 (해수부/1.26)
 - 3,824명(인니 2,844명, 베트남 436명, 필리핀 472명, 미얀마 39명, 기타 33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알림 (전화원사/1.14)
 - 법안 본회의 통과(1.8) 및 관련 주요내용 등
- 2021년도 EU 수출 등록선박에 대한 정기 위생점검 일정 알림(수품원/1.22)
 - 22개사 106척
- 승선근무예비역 관련 업무추진
 - 승선근무예비역 인권침해여부 대면상담 실시 계획을 알리고 협조 당부(회원사/1.26)
- 수산물가공업 신고서 제출 요청(전화원사/1.25)
 -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등 제출
- 해적관련 업무추진
 - 가. 서아프리카 해적 피랍사건 발생 전과 및 해적피해 예방 지침 이행 철저 요청(전화원사/1.28)
 - 나.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조회(전화원사/1.29)
 - 고위험해역 진입 선박에 대한 원양어업 허가 제한 및 선원의 면허 박탈 등

- 코로나 관련 업무 추진
 - PCR 음성확인서 제출대상(외국인) 확대 안내 (전화원사/1.4)
 - PCR 음성확인서 관련 내국인 조치계획 안내 (전화원사/1.6)
 - 영국, 남아공 발 입국자 등 방역 강화 시행 알림 (전화원사/1.12)
 - 한시적 어선검사 연장지침 연장수정 알림 (전화원사/1.12)
 - '21.3.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연장기간은 최대 6개월 초과할 수 없음
 - 외국인선원 임시생활시설 중도퇴소·출국 관리 철저요청(전화원사/1.15)
 - PCR 음성확인서 한글·영문 발급 기준 안내 (전화원사/1.15)
 - 방역강화 대상국가 조정에 따른 전자검역 체크리스트 변경알림(전화원사/1.15)
 - 브라질 발 입국자 방역강화 조치 안내 (전화원사/1.20)
 -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기재사항 추가안내 (전화원사/1.29)
 - 방역강화 대상 국가 조정사항 알림 (전화원사/1.29)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줄음شط터 이용협조 요청(전화원사/1.29)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개정 (제9-3판) 안내(전화원사/1.29)
 - 2021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 변경 안내 (전화원사/1.8)
 - 코로나19(전 세계) 및 그 외 지역별 검역감염병

홍보·마케팅지원센터

- 1월호(제1129호) 제작
 - 협회소식 4건(신년사, 인권교육 동영상 제작 등)
 - 국내소식 6건, 해외수산정보 36건
 - 명예해양수산물 보고사항, 업무 동향 등 정리
 - 교정 및 편집 의뢰, 인쇄 및 발송(314권)
- 원양산업 정보&뉴스 제공(87호 1.6, 88호 1.13, 89호 1.20, 90호 1.27, 회원사 임직원 카카오톡 및 이메일 송부, 홈페이지 게시)
 - 제87호 정보 8건(중국 Liancheng사, 80일 만에 참치 가공공장 건설/ 블랙시트 거래, 스페인의 포클랜드 조업 막대한 손실/ 미국 농무부, 최신 식생활 지침 발표)
 - 제88호 정보 10건(방콕, 가다랑어 거래 거의 없어/ 日 재고, 냉동 콩치감소, 냉동 오징어 증가/ 마루하니치로 베트남에 가공 거점 마련)
 - 제89호 정보 11건(세이셸, 민간 산업을 위한 어류 가공 구역 확정/ 아르헨티나 채낚기선, 오징어 조업 시즌 시작/ NPFC 콩치 관리 강화 논의)
 - 제90호 정보 15건('20년 4분기 태국 참치캔 수출 급감/ 러시아, 미국 A시즌 조업 시작, 코로나 제약 지속/ 포클랜드, ITQ 관련 제도 변경 추진)
 - 조업 동향, 유가정보 취합
- 보도자료 작성, 홍보
 - 가. 해외수산협력센터, 원양 선원 인권교육 동영상 제작(1.18, 부산일간지, 수산전문지)
 - 현대해양(1.18, 인터넷), 한국수산경제(1.25) 2면, 수산인신문(1.25) 3면, 어민신문(1.25) 11면
 - 나. 원양협회, 2020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1.18, 일간지, 수산전문지)

- 현대해양(1.18, 인터넷), 한국수산경제(1.25) 2면, 수산인신문(1.25) 3면, 어민신문(1.25) 5면
- SNS 홍보(페이스북 3건(1.18))
- 원양 오징어채낚기 어선 근 30년 만에 신조
- 영국 언론 매체 Mail Online 인용, 과학자들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6가지 식품 (참치 포함) 소개, 참치 관련 중국 Bohai 대학 연구 소개
- 원양 선원을 위한 인권교육 동영상 처음으로 제작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 1부

- 유엔 BBNJ 중장기 대응방안 수산부문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
 - 기간/장소 : '21.1.19, 14: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원양산업과, 국립수산물과학원, FMC, 부경대 관계자, KIOST, KMI / 협력1·2부
 - 내용 : BBNJ 중장기 대응방안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영향 분석 자료 관련 관계기관 협력 방안 논의
- 제1차 참치연승어업위원회 개최
 - 기간/장소 : '21.1.21, 14:00 / 영상회의
 - 참석자 : 참치연승출어선사 / 협력1부
 - 내용 : 미국 해양포유류 보호법(MMPA) 동등성 평가 저감조치 목록 협의
- EEZ 경계조업 및 해양포유류 등 부수어종 혼획 유의 당부
- 연안국 경계 좌표 및 기구 별 부수어획 보존조치 제안내(전 회원사)
 - 해양포유류 또는 부수어종 우발적 포획 시 안전 방류 및 기록 당부
- 지역수산관리기구(RFMO) 보존조치 이행 지원
 - 2021년 IATTC수역 해상전채프로그램 분담금 1차분 납부
 - ICCAT 열대성참치 어획능력/조업계획 관련 의견 조회(참치연승)
 - 태평양 수역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 어획량 조사
 - 2021년 ICCAT 참다랑어 조업계획 업계 의견 제출
 - 2020년 부수어획용 유보량 이월 요청
 - ICCAT/IOTC/CCSBT 선박 등록부 허가선 목록 검토 요청
 - 허가 만료 전 선박 정보 갱신, ICCAT 해상전채 허용 운반선 목록 제출 요청
 - 2021어기 PNG 입어 허가장 원본 발송
 - CCSBT 12월 조업실적 및 2월 양륙계획 제출 (해수부, 수품원)
 - 태평양 수역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 어획량 조사
- 참치선망 입어 지원사항
 - 참치선망 조업일수 전매 경비 정산
 - 태평양 선망 월간 어장 정보 제공에 대한 업계 의견 전달(과학원)
 - 2021어기 PNG 신용장 개설 발생 경비 정산
 - 참치선망 조업일수 추가구매(PNG)
 - 수역별 조업일수 소진현황 조사
- 수역별 어획실적 등 조사
 - 참치선망·연승선 수역별 어획실적, 입어료, 제반경비 등 조사(참치업계)

해외협력 2부

- 제30차 한·러어업위원회 관련 업무추진
 - 가. 회의 대비 회의자료 제출 요청
 - (1.4 / 북양, 대구, 풍치위원장)
 - 제30차 한·러어업위 '21년 1분기중 개최 협의 내용 알림 및 업계 의견 제출 요청
 - 나. 제30차 한·러어업위원회 대책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1.12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수과원, 수품원, 수협, 업종별 위원장 / 해외협력본부장 외 3명
 - 회의내용
 - 기 수산청 제출('20.9月) 쿼터량업어로 변경여부 협의(미변경)
 - 미소진 쿼터 반납 허용, 허가장 및 조업일지 발급 간소화 등
 - 의제별 쟁점 안전 중 우선순위 논의
- 북양트롤러선 장기정박지 지정 협조 건의문 제출 (1.14 / 해수부)
 - (요청) 진해(장천항), 마산(칠천도), 거제고현항 중 지정
 - (추진) 거제 장생포 외항 정박 예정
- 오징어어업 업무추진
 - 아르헨티나 EEZ 공식 좌표 재확인 및 안전 조업 당부 알림(1.5 / 오징어출어사)
 - '20년도 포클랜드 수역 입어실적 조사 (1.5 / 오징어트롤출어사)
 - 공해상 선박 안전 규정 준수 요청 알림 (1.7 / 오징어채낚기출어사)
 - 포클랜드 경비정의 선박내 구조보트 부재 지적 사항 입수 및 알림
 - 중국원양어업협회 서한문 입수(1.7 / 한국수산회)
- 중국 오징어어선 9.1~11.30까지 동남부 태평양 지역에서 공해 지역 자발적 휴어 시행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비대면강의 개최 및 참석자 명단 제출 알림(1.7 / 오징어출어사)
- 포클랜드 항만청 항만검색시 유의사항 사전교육 철저 요청
- 영국 MSN 1873 선주의견 관련 및 포클랜드 항만청 의견(안) 입수, 번역 및 안내(1.15 / 채낚기위원장)
- 포클랜드 항만청 및 현지 대방사간 PSC 설명내용 접수, 번역 및 안내 (1.22 / 채낚기위원장 등 포클랜드 입어선사)
- KR아카데미 맞춤형 선박안전관리책임자(DPA) 교육 개설 및 수료 완료(1.13~14 / 한국선급)
 - 13개사(채낚기 12개사, 트롤 1개사) 17명
- 대방사 요청 자료(선박별 비상배치표/DPA수료증) 송부(1.19/채낚기위원장)
- 포클랜드 측 '코로나19'관련 입항 서류 안내 (1.29 / 채낚기위원장)
- 2021어기 포클랜드 해운대리점(SAAS) 이용 제안 알림(2.2 / 채낚기위원장)
 - * 40피트당 US\$9,077, 2척 이용예정
-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 입항선박 VMS 항적기록 의무 제출알림(1.27 / 전화원사)
 - 몬테비데오 입항하는 모든 외국인 선박은 입항 4일전까지 VMS 항적기록 자료 제출 의무화 알림
-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업무추진
 - 가. 제9차 SPRFMO 연례회의 사전대책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1.12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수과원, 수품원, 전갱이·오징어 업계 / 해외협력2부
 - 회의내용

- 전갱이 쿼터 관련 페루 제안서(페루 EEZ수역 제외) 반대 대응
- 오징어 읍서버 승선율 5%로 유지대응
- 칠레 제안서(항만검색률 50% 상향조정) 반대 대응
- 나. 제8차 SPRFMO 이행위원회 참석
 - 일시/장소 : '21.1.20~23, 22:00~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수과원, 수품원, 전갱이, 오징어 업계 / 해외협력2부
 - 내용 : 전갱이 쿼터관련 페루 제안서, VMS 데이터 취합 제안서, IUU 선박명단 논의
- 다. 제9차 SPRFMO 연례위원회 참석
 - 일시/장소 : '21.1.26~2.4, 08:00~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수과원, 수품원, 전갱이, 오징어 업계 / 해외협력2부장 외 2명
 - 내용 : 전갱이 쿼터 관련('20년 대비 15%증가) 등 제안서 채택
- * 전년대비 7,815톤
- 라. 정일산업 트롤 2척 SPRFMO 선명변경 요청(1.4 / 해수부)
- 마. SPRFMO 제9차 연례회의의 사전 대책회의 개최 알림(1.6 / 전갱이·오징어채낚기출어사)
- 바. SPRFMO 제9차 연례회의의 사전 대책회의의 업계 의견 수렴 알림(1.8 / 전갱이·오징어채낚기출어사)
- 사. SPRFMO 제9차 연례회의의 사전 대책회의 참석자 명단 제출 알림(1.8 / 해수부)
-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업무추진
 - 가. 제6차 NPFC 연례위원회 참석자명단 제출 (1.29 / 해외수산협력센터)
 - 나. 제6차 NPFC 연례위원회 보존조치 검토의견 제출요청(1.29 / 북양·공치·오징어 위원사)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업무추진
 - CCAMLR 협약수역 조업폐쇄 통보 회람문 알림 (1.22, 1.28 / 남빙양저연승출어사)
- 조업폐쇄시각 : '21.1.28, 23:59 UTC
'21.1.22, 23:59 UTC
- 해외어장 자원조사 수역 생산량 자료제출 (1.4 / 해수부)
 - 해외어장 자원 수역 생산량 '20.11월까지 업데이터하여 제출
- '21년도 원양어선 안전관리(펀드) 사업 수요조사 안내(1.14 / 전회원사)
 - 노후 원양어선 신조대체 지원 안전관리 사업 수요조사 안내
 - 21년 공치/오징어채낚기 대상 2척
 - 22년 이후 타업종 포함 조사
- '21년도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신청서 제출 (1.14 / 부산시)
 - 공치붕수망어업 8개사 9척
-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개정 업무추진
 - 가. 공해 저층어업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조치 관련 의견 제출 요청(1.18 / 남빙양·오징어트롤위원사)
 - 나. 공해 저층어업 해양포유류 혼획저감방안 관련 영상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1.21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남빙양·오징어트롤위원사 / 해외협력2부
 - 내용 :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방안(어업관행/자발적조치/금어기 등) 협의
- 다.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및 전문가협의회 구성 운영계획 알림 (1.22 / 남빙양·오징어위원사)
 - 개정내용
 - (저연승) 읍서버커버리지 상향(50%이상 → 100%)
 - (공해 저층어구 조업선) 해양포유류 혼획저감계획마련, 혼획 시 즉시방류

- (전문가 협의회) 정부(해수부, 수과원), 업계 (협회, 저연승/트롤업계), 학계(KMI) 참여, 2월 1차 회의 실시
- 라.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조치 실무협의회 개최
 - 기간/장소 : '21.1.26 / 협회 소회의실
 - 참석자 : 이빨고기 저연승 출어사 / 해외협력2부
 - 회의내용
 - UN결의 이행 고시 개정 및 저연승 업계의 미국 동등성 평가 관련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목록 협의
 - 해양포유류 저감을 위한 동등성평가 업계 대응 방안 협의
- 공해 저충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견 제출(1.29 / 해수부)
 - 행위주체변경(어선→자)
 - 혼획저감계획서의 제출 자료 통일화를 위해 별지 기준 서식 및 절차 보완 필요
- 해외어장자원조사 업무추진
 - 2021년도 해외어장자원조사 수요조사 및 사업 지침 알림(1.27 / 전회원사)
 - 2020년도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 결과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제출(1.28 / 해수부)
 - 정일산업/아그네스수산
 - 2020년도 해외어장 자원조사 정산처리 (1.28/ e나라도움)
 - 보조금 교부에 따른 과세 자료 제출
 - 아그네스수산, 정일산업 과세자료 제출
- '20년도 원양산업 관련 회의 개최 사업 업무추진
 - 보조금 확정 알림 공문 입수(1.11 / 해수부)
 - 사업정산(1.21/e나라도움)
 -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 처리(1.22/e나라도움)

부산지부

- 공인차량계량소 업무추진
 - 총 78개사 556건('21.1.1-1.31)
- 부산권 냉동창고 근로자 산재보험관리기구 및 복지위원회(연금+건강보험) 이사회 참석
 - 일시/장소 : '21.2.3, 11:00/원양프라자 3, 4층
 - 참석자 : 냉동창고 화주 및 노조 등 11명(부산지부장)
 - 내용
 - (산재) '21.1월 산재보험 대상자 확정 신고
 - (복지) '21.1월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확정 신고
- 원양어선 입출항현황 조사 보고(부산항만청)
 - 입항 : 6개사 8척(북양트롤1, 참치선명1, 참치연승6)
 - 출항 : 5개사 8척(북양트롤1, 참치연승 7)
- 각종 확인 업무
 - 원양어업용선수품 무환반출 확인업무
 - 원양어획물 양륙신고 확인업무
 - 수출확인업무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지원팀>

- SPRFMO 연례회의 참석
 - 일시/장소: '21.1.20~1.29/ 센터 영상회의실
 - 참석자: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원양산업과,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협회, 업계, 협력센터 양재걸 전문관
 - 내용: 보존관리조치 이행평가, 제· 개정 보존관리조치 제안서 논의, IUU 선박목록, 21-22년 예산, 재정규칙 개정, 신임 의장단 선출, 신임 사무국장 고용계약 등

○ 일본 동향 모니터링, 자료 조사

가. 방사능 처리수 정부/언론 동향 모니터링

(해양환경정책과)

- 처리수 해양방출 여론조사 결과
(아사히 신문 조사)
- 도쿄전력 탱크 증설 관련 후쿠시마 지역 언론
기사 정리 자료
- 해양방출안 관련 전 농림수산업 부대신 인터뷰
내용 정리 자료
-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 총리 발언 변화 정리
(탱크 증설 검토 등)

나. 일본 해양영토 관련 동향 모니터링(해양영토과)

- 일본 환경성, 독도, 조어도, 북방영토에 대한 식생도
작성 계획
- 일본 국회 외무대신 연설 중 독도 비롯 해양영토
관련 발언 정리 자료
- 해양 안보회의 (중일, 미일) 내용 정리 자료
- EEZ 내 해양조사 관련 일본 언론 동향

<해외진출지원팀>

○ OFIS 개선사업 용역

- OFIS 개선사업 사전협의 검토의견 반영 결과서
작성, 회신(1.15, 국제협력총괄과)
- OFIS 사이트 서버 KISA 인증 클라우드로 이전
- 용역 공고 (나라장터, 1.19.)
- 용역 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1.26.~1.27. / 서면검토
- OFIS 개선사업 용역 계약 (1.29.)

○ 명예해양수산물 제도 운영

- '20년도 종합보고서 제출(1.20, 국제협력총괄과)
- '21년도 운영지침 안내, 수시과제, '20년도 논의
내역 발송(1.29, 명예해양수산물 9명)

○ 연안 개도국 수산인프라지원사업 관련 업무추진

가. 해양수산 ODA 신규사업 발굴 기관별 담당자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1.26/ Zoom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조경래 사무관, 기관별 담당자
(개별 회의)

나. '20년 ODA사업(투발루) 지원물품 검수 출장

- 일시/장소 : '21.1.25/ 경기도 광주 신안과학
- 참석자 : 느낌기획원 신재승 대표 외 4명, 협력
센터 권현옥 센터장, 이희진 팀장, 서규혁
행정관

- 내용 : 제빙기 검수

○ 원양산업 통계조사 사업

- 2021년 사업계획서 제출 및 교부요청(1.22)
- 조사표 변경(안) 작성
- 이용자 설문조사 실시(1.15~1.29)

○ 센터 운영 관련

가. 2020년도 해외진출지원프로그램 구축운영사업
4/4분기 실적보고 제출(1.8, 국총과)

나. '21년도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사업 시행
지침 통보 접수(1.19) 및 사업계획서 제출(1.20,
국총과)

다. 직원 신규채용 진행 (전문관 1명, 행정관 1명)

- 서류접수 : 1.19~1.29





오징어 야채덮밥



❖ 재료

- 조리시간 : 25분
- 재료 : 오징어 : 1마리, 당근 : 1/2개,
양배추 : 1/2개, 피망 : 2개,
옥수 : 5컵, 녹말가루 : 2큰술,
설탕, 소금 : 1작은술, 밥, 메추리알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오징어는 내장을 빼내고 껍질을 벗긴 뒤 가로 세로로 칼집을 넣은 다음 3cm 크기로 네모지게 썰어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낸다.
- ② 녹말가루를 물 4큰술에 탄다.
- ③ 당근과 양배추는 먹기 좋게 썰고 피망은 속과 씨를 빼내고 6쪽 썰기를 한다.

- ④ 메추리알은 삶아서 껍질을 벗겨낸다.
- ⑤ 팬을 뜨겁게 달군 뒤 식물성 기름을 두르고 야채를 볶는다. 야채에 기름이 골고루 밴 뒤에 오징어를 넣고 볶다가 마지막에 메추리알도 넣는다.
- ⑥ ⑤에 옥수를 붓고 잘 섞으면서 끓인다. 마지막에 녹말가루 탄 물을 넣고 걸쭉하게 끓인다.
- ⑦ 뜨거운 밥을 담고 그 위에 ⑥을 끼얹어 낸다.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1월)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관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다카르항 코로나 대응 만족

- 세네갈 육군 보건 서비스 기관은 다카르항을 방문해 코로나 방지 시스템을 평가했다.
- 기관 대변인은 『매우 만족스러웠다.』

『코로나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이다』 고 말했다.

- 현재 다카르항을 통해 해외에서 코로나가 들어온 사례가 없었고 코로나가 의심되던 다카르 지겐쇼우(Ziguinchor) 서틀의 운항자 알린 시토에(Aline Sito Diatta)는 음성으로 판명되었다.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파운드, lbs)	가격 (유로/톤)	기타
황다랑어	10kg 상	1,783	
	3.4kg 상	1,055	
	1.8kg 상	972	
눈다랑어	10kg 상	1,014	
	3.4kg 상	1,014	
	1.8kg 상	972	
가다랑어	3.4kg 상	1,014	
	1.8kg 상	972	
	1.5kg 상	848	

다.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세네갈 다카르항 내 공급가	경유 337 유로 / MT	'21.1.26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관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어업 동향

- 1월~2월초 대부분의 피지 기지 선 및 원양연승선 선박들이 잦은 열대성 저기압 및 싸이클론 발생, 저수온, 기타 기상 이상으로 고기를 찾지 못해 계속 저조한 어획을 기록하고 있다.
- 현재 평균 회당 1톤 미만 어획, 선장들의 의견에 따르면 3월 중순경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 싸이클론 피해

- 열대 싸이클론 ANA가 1.30~2.1일 피지 본섬을 관통하여 지나가 14,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추산 약 1억4천만 피지달러(약US 7천만 달러) 상당의 물적 사회적 피해를 입었다.
- 현재 사회는 정상화 되었으며 계속 피해 복구중 이나 탕기열, 독감 등의 세균성 질병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해 검역당국의 주의가 발효되고 있다.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 (달러/톤)	기타
날개다랑어	10kg 상	3,200	로인가공용(PAFCO)

라.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TOTAL	\$765/ MT	'21.2.10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관



오시영
명예해양수산관

가. 어업 동향

- 금월 사모아 및 연근해 어장인 쿡아일랜드 어장에서의 어획은 날개다랑어 0.2-0.4톤,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는 0.1-0.3톤으로 저조한 어획을 보이고 있다.

나. 코로나 관련 동향

- 2월 28일까지 블루코드로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 모든 공공단체, 사업체, 학교, 대중교통, 교회 집회는 인원 제한 없이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단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벌칙금이 부과된다.
- 미국령사모아로 들어오는 모든 항공은 2021년 4월 30일까지 전면 중단했다.
- 모든 여선 및 운반선은 입항 할 수 있으나 사전 입항 허락을 받아야 하며(1개월 이상 타 항구 입항한 적 없어야 함) 입항 시 조건에 따라 선원은 선박에서 격리조치.(모든 여객선은 입항 중단)
- 자국민을 위해 1차로 159명이 2월 1일 본국 송환 항공편으로 입국하여 호텔에서 14일간 격리 중, 모두 음성 판정되었으며 모든 경비는 코로나19 경기부양금으로 지불함.
- 지난해 12.19부터 전 국민에게 무료로 코로나19 백신 Moderna 또는 Pfizer를 접종을 하고 있다.
- 2차 경기부양금으로 개인당 \$600를 지불했다.

다. 참치가격 동향

회사명	어종	규격(kg)	단가 (\$/MT)	기타
Star-Kist	황다랑어	라운드	1,230	
	눈다랑어	라운드	1,030	
Santa Co	가다랑어	라운드	1,030	

※ 가다랑어의 경우 선망선 가격 별도

라.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Clipper; Oil	\$1.86(gallon)	'21.2.8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관

가. 뉴지-중국 개선된 FTA 체결

- 2021.01.26. 2008년 첫 체결되었던 뉴질랜드-중국 FTA를 연장하며 일부 내용들이 수정되어 체결되었다.
- 수산물과 같이 상하기 쉬운 식품의 통관을 6시간 이내로 처리하기로 합의되었는데, 수출업자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중국 담당자를 제공하기로 한 점도 개선 사항으로 꼽힌다.

나. 어류가격 동향

어종명	사이즈	가격(달러/톤 /FOB 기준)	기타 (회사명)
LING	3L	3,250	Sea Jho Co.Ltd
	2L	3,250	
	L	2,750	
	M	2,000	
SQUID	2L	3,350	
	L	3,250	
	M	3,150	
	2M	2,950	
	S	2,450	
HOKI	2L	1,950	
	L	1,850	
	M	1,650	
	S	1,350	

다.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Z	MGO \$673/MT (Bluff에서 공급 기준)	'21.1.20
	LMFO \$593/MT (Timaru에서 공급 기준)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가나 참치 선단 3개월간의 대서양 어장FAD조업 금지 모라토리움으로 발 묶여

○ ICCAT 규정에 의해 2021년 가나 Tuna 어선들이 1월에서 3월말까지 3개월간 대서양 어장에서 FAD 금지 모라토리움이 시작되었다.

- 2020년까지는 2개월이었던 모라토리움 기간이 올해 1개월 더 연장되어 FAD 조업일수가 연중 25% 줄어들었다. 업계의 선박운항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 FAD 조업 금지가 2019년까지는 대서양 전체가 아닌 구역을 정하여 진행되어 전통적으로 서경 20도 이서에서 주로 조업하던 선망 선단은 큰 문제가 없었으나, 2019년 11월 ICCAT 연례회의에서 2020년 1~2월 2개월간 전격적으로 구역 구분 없이 대서양 전 해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되어 선망 어선의 운항에 큰 혼란과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다.
- 가나 참치 어선들은 노후선들이 많아 기동성이 떨어져 스쿨 피쉬 조업에 부적합하다. 또한 이제는 불법조업으로 간주되는 가다랑어 채낚기선들과 협업 조업하는 관습으로 그동안 거의 유목 조업(FAD 조업)만을 해와서, 모라토리움 기간 동안 허용되는 스쿨 피쉬 조업 경험이 전무했다.
- 참치 선망선들은 스쿨 피쉬 조업을 시도하였으나 결과는 참담하였고, 선사들은 수입 감소와 갑작스러운 수리 투입 등으로 과다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손실로 이어지는 홍역을 치렀다.

- 가다랑어 채낚기 어선들도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선원 교대, 수리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근래 몸값을 노린 기니만 연안에서의 악랄한 해적에 의한 선원 피랍사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가나 동쪽 어장에서의 조업에 제약이 걸리면서 출어를 포기하고 장기 계류하거나, 해적에 피랍되어 몸값 지불에 조업도 중지되고, 어획들도 저조한 데다, 어법상 필수 요건인 미끼로 사용될 산 멸치를 포획하기 위한 집어등 사용이 수산법상 불법으로 규정되어 미끼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선망선과의 협업 금지 조치 이후 3년여 만에 업계는 사상 최대의 존폐 기로에 서 있게 되었다.
- 이에 더하여 올해는 1개월이 더 늘어난 3개월의 모라토리움이 실시되어 선사들 경영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4월부터 조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선망조업도 이전같이 이익 창출을 장담할 수 없는 사정이 되었으며, 가다랑어 채낚기선들은 선망어탐선으로 전용하거나 스크랩하는 선박이 속출할 것으로 보여 조업에 임하는 가다랑어 채낚기선들의 감척이 예견되고 있다.
- 이런 어려움에 직면한 업계에서는 어장 이동, 폐선, 매선 등을 심각하게 고려중이며, 대서양에서 스쿨 조업 경험이 많은 유럽 어로장을 참치 선망선에 초빙하여 시험 조업하는 등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간 성과를 보기 어려워 작년 이어 올해도 혼란 속에 새로운 선망선 운항 패러다임을 잡기 위해 선사들은 오늘도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나. 수산업자들, 지속 가능한 개발 보장 위한 수산법 재정비 촉구

- 수산업 관계자들은 어업 하위 부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수산법625(2002)를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 국가의 친구들(이하 FoN)이라는 프로그램 관리자인 Mr. Kyei Kwadwo Yamoah는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수산법의 검토가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
- “좋은 규제가 없다면 업계 관리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며 “예를 들자면, 수산위원회와 수산양식개발부(MoFAD)의 업무 기능이 중복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 그는 개체수가 줄고 있는 어종의 1년 당 어획량을 제한하는 방법의 새로운 법을 통해 부족한 어류 개체수를 늘릴 수 있게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
- 또한 새로 개정할 때 어획이 가능한 배의 척수도 규정하여 수산업을 위한 정리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 “이번 개정은 어획 가능한 일수를 줄이고, 부정적인 상황들을 초래하는 장려금과 정부 보조금을 감소시키는 것에 중점을 뒀다. 또한 잘못된 점들을 고쳐 나가기 위한 어업위원회의 개혁도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특히 Yamoah 총장은 복합 범죄를 다루는 수산법 제116항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이 법은 업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 법정 밖에서의 자재 합의 과정에서 투명성과 명확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그는 법의 개정으로 인해 MoFAD와 위원회 사이의 협력이 더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개정된 법률은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한 수산업의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수산업 관계자들이 항상 수산 부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할 것이다.”
- 그는 “또한, 이 법률 개정을 통해 수산 관리인이 수산법을 집행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 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EU가 자금을 지원하는 수산업 관리 프로젝트인 “Far Ban Bo”의 시행 기관은 FoN이 맡았다.
- 수산업 전문가인 Mr. Mark Conduah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안전 보장을 위해서 수산 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수산 부문은 지속적인 채취에 의해 천연 자원 고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천연 자원의 개체 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국가 수산 부문의 관리 개선이 10년 가까이 저조한 수준을 기록했던 업종이라는 점에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투명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다. Tema 항구를 잇는 콘크리트 도로 준공

- Tema시 3구역에 Tema 해안도로와 Tema 시내를 잇는 교통 교차로가 준공됐다. 콘크리트로 된 7km 길이의 이 도로는 Meridian Harbour Service (MPS)에서 투자하여 새로 건설된 제 터미널과 Tema Main Hr를 잇는 4차로로 나뉘어지는 사분면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라.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kg)	가격(US\$/톤)	기타
황다랑어	10kg 상	1,300	
	10kg 하	1,050	
가다랑어	3.4kg 상	1,400	
	1.8kg 상	1,350	
	1.8kg 하	1,300	
	1.5kg 하	1,050	

마.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기타
Ghana Oil	\$490/kl MGO	'21.1.31	육상급유
SK B&T	\$520/kl MGO	'21.1.31	양상급유



이재원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관



이재원
명예해양수산관

가. 외국인 입국허용 비자 확대

- 법무부 장관령 6호(2020.9.29) 규정에 해당하는 자
- VITAS*, 방문비자**, APEC 카드 소지자, 외교/관용 비자 등
- *Visa Tinggal Terbatsas
- **Visa Kunjungan

- 기존에는 KITAS, KITAP, 외교/관용 비자만 허용
- TAC(필수 비즈니스 목적 입국 간소화 제도) 입국자
- 인도네시아 중앙행정기관(부,청)에서 서면으로 특별 승인된 경우
- 출발국가에서 72시간 이내 발급된 RT-PCR 음성 진단서를 받아서 입국(기준과 동일)
- 5일간 격리 및 PCR 검진은 기존처럼 실시(기준과 동일), 단 TCA를 통한 입국자는 격리 면제 적용,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
- 외국인의 한시적 입국금지 연장: 2.9일부터 새로 규정할 때까지 적용

나. 인도네시아 해양의 경제적 잠재가치

- “지속가능한 해양경제를 향한 변화”란 의제로 2020.12.3 결성된 14개국 협의체(인도네시아, 호주, 캐나다, 칠레, 가나, 자마이카, 일본, 피지, 케냐, 멕시코, 나미비아, 노르웨이, 팔라우, 포르투갈)의 고위급 패널의 Web Seminar가 12월 22일 자카르타에서 열렸다.
- 인도네시아 Padjadjaran대학교 SDGs 센터 상임 이사 Suzy Anna씨가 발표한 인도네시아 해양의 경제적 잠재가치에 대해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인도네시아 해양면적 : 640만 km²(내해 311만 km², 영해 29만km², EEZ 300만km²) - 지구 전 해양면적의 5.32%

- 대륙붕 면적 : 280만km²
- 해안선 길이 : 108,000 Km - 세계 2위
- 인도네시아 전해양의 경제적 가치 : 1,700조 루피아 (1USD = 14,000루피아)
- 해안지역 경제적가치 : 560조 루피아, 생명공학 분야 : 400조 루피아, 수산분야 : 312조 루피아, 원유 가스매장량 : 201조 루피아, 해운분야 : 200조 루피아
-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잠재적 경제가치의 이용은 미미한 수준으로 수산부분이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2~3%에 불과하다.

다. 새로운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

- 12월 23일 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6개부의 장관을 교체하는 소폭개각을 단행했다.
- 뇌물수수 혐의로 물러난 Edy Prabowo 전 장관 후임으로 Sakti Wahyu Trenggono 장관이 임명되었다.
- 신임 장관은 1962년 중부자바주 Semarang시 출생으로 국립 반둥 공과대학교 졸업(전공:경영학) 후 기업경영인으로 활동하였으며 2019년 10월 Jokowi대통령 2기 내각 국방부 차관을 역임했다.

라.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1.3일 기준)

- 누적 확진자 수 765,350명(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 7,426명), 사망 22,734명(최근 1주간 일평균 사망자 183명), 회복 631,937명
- 최다 확진자 주는 자카르타 특별주(189,243명), 최다 사망자 주는 동부자바주 (6,009명)

마. 한인 동포 코로나19 현황(12.31 기준)

- 총 확진자 84명, 치료중 16명(입원 1명, 자가격리 15명), 회복 63명, 사망 4명, 한국이송 : 1명



이호상 페루 명예해양수산관



이호상
명예해양수산관

가. 멸치(ANCHOVETA) 어획 양호

- '20.11.12~'21.1.25까지의 페루 중·북부 수역 2차 멸치 조업 시즌에서 총 2,450,000톤의 멸치가 어획되었다.
- 목선 405척, 철선 304척 등 총 709척이 조업했다.
- 주 양륙항은 CHICAMA(32.30%), CHIMBOTE(23.50%), COISHCO(11.60%), CALLAO(6.20%)이다.
- 동 수역 1차 조업 시즌에서 어획된 2백 37만톤을 합하면 이미 4백 82만톤이 어획 되었으며, 이제 남부수역 조업개시 발표를 기다리고 있음.

나. 코로나 동향

- 전국의 코로나19 상황을 위험, 고위험, 극위험 등 3 단계로 나누어 본 등급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 조치가 시행된다.
- 리마/까야오 지역은 극위험 지역에 속하여 1. 31~2.14까지 총 15일간 의무 격리를 시행중이다.
- 1일 1회 1시간만 외출가능하며 18:00시 부터 06:00시까지 통행금지이다.
- 은행과 금융기관, 마트, 시장, 약국 등은 시설 인원 제한 40%. 체육관, 백화점, 미용실, 박물관, 종교 시설 등은 0%이다. 식당 내·외부도 0%로 배달만 가능하다.
- 2월 8일 현재 확진자는 1,186,698명, 사망자는 42,308명이다.
- 영국의 변종 바이러스 발생 후 페루-유럽 항공 노선이 2.14까지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페루-브라질 노선도 2.14까지 중단 상태이다.

- 선원 교체를 제외한 일반적인 선박 업무는 계속 정상 진행 중이다. 2월 12일 스페인 연승선 GLORIA FIGUEROA, 2월 15일 일본 참치선 CHOKYU MARU 88호 등 2척 입항 예고 및 APM 부두접안 예약되었다. 어획물 하역 및 배이트 선적, 컨테이너편 선용품 인수 예정이다.

다. 페루 대선 및 총선 일정

- 4월 11일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실시된다.
-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6월 6일에 결선 투표예정 으로 1995년 이후 모두 결선 투표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된바 있다.
- 7.27일까지 새 국회 개원, 7.28일 신임 대통령과 부통령 취임 예정이다.

라.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 격	조사일
PETROPERU	\$2.47 / 갤론	'21.2.8

정연국 남아공·모잠비크 명예해양수산관



정연국
명예해양수산관

가. 남아공 동향

- 입국 시에는 방문일 72시간 이내 획득한 코로나19 음성테스트 유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 코로나19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대통령은 12월 29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조정된 3단계 폐쇄를 선언했다.
- 모든 9개의 상업 항구에서 외국인 선원 변경이 허용된다.



- 선원들은 입국일 72시간 이내에 공인된 실험실에서 획득한 COVID-19 음성테스트 결과에 대한 음성 종합효소 연쇄반응(“PCR”) 테스트인증서 또는 유효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 선원이 유효한 PCR테스트 인증서를 생성하지 못한 경우, 선원 본인 부담으로 격리해야 한다.
- 선박의 선원들을 변경하지 않았거나, 남아프리카 항구에 도착하기 전 10일 이내에 외국 항구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 서명한 승무원은 유효한 PCR 테스트 인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선원이 이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선원 본인 부담으로 격리해야 한다.
- 외국인 선원은 본인의 비용으로 7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지정된 검역시설에 머물 수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입국항으로 직접 이동해야 하며 남아프리카 이민 조건 및 항만 보전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한다.

나. 모잠비크 동향

- 모잠비크에서 새로 통과된 어업법은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상어, 쥐가오리 및 모든 모불라 (Mobula) 여러 종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다. 새로운 법안은 1월 8일에 발효되었다.
- 어부들은 이제 지느러미가 부착된 상어의 어체 전체를 육지에 하역해야 하며, 연구 사용 허가가 사전에 없는 한 잡어 어획물은 바다에 돌려보내야 한다.
- 산호, 해초 또는 맹그로브에 대한 파괴적인 낚시 관행과 살아있는 산호 채취를 금지한다. 가장 큰 이슈는 모든 그물 조업에 거북이 제외 장치가 의무화된 것이다.

- 모잠비크는 12월 30일의 태풍 Chalane과 1월 23일의 태풍 Eloise, 두 차례의 태풍을 맞았다. 이 두 태풍은 큰 홍수를 남겼고 특히 태풍 Eloise로 인하여 Beira 항구의 많은 어선들이 손상을 입었으며 중국 어선 3척이 침몰됐다.
- 모잠비크 북부지역 카보 델가도에서 IS로 인한 반란이 계속되고 있다. 모잠비크 중부지역 또한 Renamo Junta로 알려진 정치적 극단주의자들로부터 반란이 계속되고 있다.
- 모잠비크는 2021년 1월 기준 20,000건 이상의 Covid-19 사례를 기록했다.
- 북부 Cabo Delgado의 폭력을 피한 난민 캠프와 최근 태풍/홍수 피해자를 수용하는 난민 캠프로 인해 Covid-19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
- 모잠비크 입국 시에는 방문일 72시간 이내에 획득한 COVID-19 음성 테스트 유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모잠비크에서는 격리가 필수는 아니다.

다. 유류가격 동향

지역	가 격	조사일
Durban	MGO \$553 / MT	'21.1.27
Cape; Town	MGO \$551 / MT	'21.1.27
Beira; Petromoc	MGO \$770 / MT	'21.1.28

<계재순서 : 명예해양수산관 성명 가나다순>





참치 오메가3, 청소년기 천식 감소에 도움 될 수 있어 특정 변이 유전자 보유 어린이에게서 연관관계 확인

유럽 호흡기 저널(European Respiratory Journal)에 올해 1월 28일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참치와 다른 어종에서 유래한 산을 많이 섭취한 어린이는 중기 청소년기까지 천식 발생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의 작성자들은 영국과 스웨덴 연구 기관의 과학자이다. 그들은 어릴 때 일부 유형의 오메가 3를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천식 발생 위험을 낮추는데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했다. 과거에도 참치와 같이 기름이 풍부한 어류 소비가 어린이 천식 위험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었다.

연구진은 Avon Longitudinal Study of Parents and Children(ALSPAC)의 자료를 활용하여 어린이 4,543명의 출생부터 7세까지를 추적했다.

어린이 식단에서 어류를 통한 오메가3 지방산 섭취량은 참치, 갑각류, 흰살 생선, 빵가루 또는 반죽을 입힌 흰살 생선, 어유의 섭취를 기준으로 했다. 이 연구에서 참치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두 번째로 많이 소비되었으며 약 18.4%가 섭취했다. 일일 총 어류 섭취량의 중앙값은 24.3g이었다.

연구진은 처음 검토했을 때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변이 유전자를 보유한 어린이 그룹에서 연관성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ALSPAC 자료에서 2,136명의 어린이를 추출해 연구했다. 이 그룹 어린이들의 총 어류 섭취량은 적었지만 오메가3 섭취량은 더 많았다. 연구 결과 오메가3 지방산 섭취와 천식 발병 사이의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변이 유전자를 가진 어린이가 어릴 때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한 수준이 높으면 청소년기에 천식에 걸릴 위험이 낮을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논문에는 『지방산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실제로 천식의 발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천식 진단을 받은 어린이의 악화 위험을 낮추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위한 새로운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게재되어 있다.

이 연구 결과가 사실로 확인되면 천식을 예방하기 위한 특정 집단의 지방산 보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2월 5일자





도요스 시장 참치 「매출 적고 가격 하락」 이중고 긴급 선언으로 수요 감소, 업체 비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비상 사태 선언 재 발령에 의해 도쿄 도요스 시장에서는 참치 등 고급 생선을 중심으로 다시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

연초에 생선 입고가 적은 시기에 음식점 휴업이나 영업시간 단축으로 또 다시 수요가 격감했다. 가격도 떨어져 시장 업체에서 ‘매출 감소와 가격 하락’ 이중고라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 시장에서는 코로나 재난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한 후, 경매 등을 실시하고 있다.

냉동 참치 매장에는 고급 상점이 취급하는 아일랜드 연안에서 어획된 참다랑어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앞바다에서 잡힌 남방 참다랑어 등이 늘어서 있지만 수요 부진으로 입하가 감소했다. 원래 1월은 연말 판매 경쟁의 반작용으로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하순은 특히 전년보다 약 40% 감소되었다.

입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 가격은 감염 확대 이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30% 하락했다. 도매 회사 담당자는 『비정상적인 감소인데도 경매 가격은 떨어져 더블 펀치를 맞았다』 고 울상을 지었다.

참치뿐만 아니라 겨울의 별미인 자바리, 호랑이복 같은 고급 생선 외에도 산지에서 산 채로 운반되는 장어나 광어 같은 활어 등도 부진했다.

음식점들이 주로 구입하는 중도매 시장에서도 매수인의 모습은 뜸했다. 도쿄 도내에는 작년 봄보다 인파가 늘고 있지만 음식점은 시간 단축 영업 등의

영향으로 구매를 자제하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고급 스시 점을 고객으로 하는 베테랑 중도매업자는 『고객 수가 반감, (고객의) 개별 주문 이외는 매입 할 수 없게 됐다』 고 낙담했다.

다른 중도매 업자도 『연말 판매 경쟁이 부진했던 일도 겹쳐 경영이 한층 어려워진 가게가 증가한 것은 아닐까?』 라며 위기감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슈퍼나 할인점용 전갱이와 고등어 등 대중 생선의 매출은 사재기가 일어난 작년 봄만큼은 아니지만 견조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 업자에 의한 개인 인터넷 통신 판매도 계속 호조라고 하며, 관계자는 『코로나에 견디면서 새로운 판로를 찾아 가고 싶다』 고 말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2월 1일자





방콕 가다랑어 거래, 얼어붙어

톤당 1,200~1,250 달러 선

지난 몇 주 동안 방콕에서 가다랑어 거래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가다랑어 수요가 낮은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태국 캔 가공업자들은 캔 제품을 운송할 컨테이너가 부족해 운송 지연 현상을 겪고 있다.

냉동 가다랑어 원물 거래는 계속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냉동 가다랑어 원물(1.8kg 이상) 가격은 ATUNA가 1월 8일에 조사한 톤당 1,230 달러에서 큰 변화가 없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거래가 톤당 1,250 달러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톤당 1,200 달러 아래에서 거래되었다는 소식도 있다. 따라서 거래는 크기, 품질, 배송 기간에 따라서 톤당 1,200~1,250 달러 선에서 이뤄졌

다고 볼 수 있다.

소식통은 중서부태평양에서 오는 운반선들이 공급하는 가다랑어 물량이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태국에서는 현재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다. 많은 수의 신규 감염 발생자가 참치 가공공장이 가장 많이 위치해 있는 Samut Sakhon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1월 29일 기준으로 Samut Sakhon 지역에서 신규 감염이 802건, 누적으로 17,203건 발생했으며 코로나 사전 예방 테스트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Samut Sakhon 지역에서 대부분의 감염자가 발견되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월 29일자

낮은 어획량 & EU 수요, 만타 어가 높은 수준 유지

1,700 달러 유지

에콰도르 만타항에서 냉동 가다랑어 원물의 거래 가격은 지난 두 달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과거 참치 가격은 12월과 1월경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최근의 움직임은 비정상적이지만 낮은 양륙량으로 인해 유지되고 있다. 현재 가다랑어 1.8kg 현금 거래 가격은 1,700 달러로 지난해 11월, 12월 가격과 동일하다. 최근 동부태평양 어획량은 과거 평균 보다 훨씬 낮아 어가 상승을 견인했다.

에콰도르 소식통은 어장폐쇄(veda)가 종료되고 일주일 이 지난 후에도 가다랑어 가격이 톤당

1,700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선박이 현재 조업 중으로 언제든 가격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에콰도르 캔 가공업자들은 EU와 장기 계약을 맺고 있어 연간 참치캔 공급량이 계약에 묶여 있다. 계약에 의한 수요가 안정적인데 반해 더 적은 참치가 양륙되어 가격이 급등했다.

2020년 두 번째 veda는 1월 19일에 종료되었다. 그 이후 모든 선박선들이 veda 기간 동안 참치가 많이 모인 FAD를 향해 출항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2월 4일자



NGO, PNA의 FAD MSC 인증 확보 시도에 이의 제기 ISSF 등 4개 단체, 인증 기관인 Lloyd's Register에 이의 제기

110만톤을 어획하는 PNA 참치 어업이 2020년 12월에 해양관리협회의(MSC) 인증 FAD 사용 선망 어선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PNA의 움직임은 이미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여러 이해 관계자가 인증기관인 Lloyd's Register에 이의를 제기했다.

PNA는 거의 10년 동안 스쿨 조업 어획물에만 MSC 로고를 사용했다. PNA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MSC가 2023년부터 선박이 MSC 인증 어류와 비인증 어류를 같은 항체에 운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총 네 개 NGO, 국제수산물지속가능재단(ISSF), 세계자연기금(WWF), On the Hook, 투명한 참치 어업을 위한 연합(CTTF)에서 Lloyd's Register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4개 기구 모두가 제기한 주요 문제는 '어획통제규칙(HCR)' 및 'FAD 사용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Lloyd's의 예비점수이다.

ISSF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타겟 자원의 지속가능성 제1원칙인 어획통제규칙과 도구에 관한 것이다. FAD 사용 선망선 인증에는 PNA EEZ에서 어획한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가 포함된다. ISSF는 독립 보고서를 통해 SG60 최저기준을 달성하지 못해 자동적으로 인증에 실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ISSF의 관심은 주로 눈다랑어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것이었다. ISSF는 지난 자원 평가 결과 눈다

랑어의 자원 상태가 녹색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관리조치의 효과라기보다는 성장 모델 변화에 따른 것이며, 기존 관리조치로는 성어와 치어 모두의 어업 사망률을 줄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MSC 인증을 획득하려면 관리 도구가 WCPFC에서 합의한 목표 수준에서 자원을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명확해지도록 효과적인 공식 어획 전략으로의 명백한 진전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On the Hook도 어획통제규칙의 부재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CTTF 또한 어획통제규칙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On the Hook는 FAD 어업이 참치 치어, 상어 등 기타 취약 어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On the Hook는 「선망선 FAD 참치 어업 시 더 높은 치어 어획률을 감안할 때 FAD 사용으로 인한 참치 치어 개체수에 대한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TTF는 FAD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관리가 부족하다며 FAD 사용 선망선이 MSC 인증에 포함되기에 부적절하다고 더 강하게 말했다.

Lloyd's Register는 각 이해 관계자의 우려 사항에 응답할 것으로 향후 발표할 PCDR에 관련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월 27일자



태국, 2020년 참치 수입량 12% 증가 우리나라는 수출량 34% 감소

태국 캔 가공업자들의 연간 참치 원물 조달량이 70만톤 장벽을 돌파한지 5년이 지났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냉동 참치 원물 수요가 새로운 차원으로 증가했다. 선주들은 지난 몇 년 동안 태국에서 경험한 물량 감소를 일부 회복했다.

2020년 한 해 동안 태국 냉동 참치 원물 수입은 총 70만 3,574톤으로 2019년에 비해 12% 증가했다.

분기별로 보면 지난해 1~3분기 수입량은 2019년에 비해 1% 증가에 그쳤으나 4분기 수입량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관할 수역에서의 어획량은 10월과 11월 증가에 힘입어 가장 높은 수준을 달성했다. 중서부태평양에서 어획된 참치 원물을 방콕으로 운송하는데 보통 대략 4~6주가 걸리므로 연말 방콕에서의 판매가 좋았던 것이 설명된다. 소식통이 12월 동안 냉동 가다랑어 원물의 거래 활동이 저조했다고 알려진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놀랍다.

태국 가공업자들은 예년과 같이 대만 선단에서 가장 많은 참치 원물을 구매했다. 대만 수입분은 총 수입량에서 거의 20%를 차지했다. 2019년에 비해 수입량은 1만톤 가까이 증가했지만 톤당 평균 수입 금액(CFR 기준)은 8% 감소했다.

나우루와 바누아투로 부터의 수입은 각각 484%, 531% 증가하며 두 국가 합계 거의 10만톤을 수입해 총 수입량에서 14%를 차지했다. 이러한 급격한 증

가는 지난 2년 동안 이 지역의 선망선 몇 척이 해당 국가로 국적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Atuna는 이전 기사에서 바누아투 참치 선망선이 2018년 2척에서 2019년에 6척으로 증가했으며 나우루는 2척에서 9척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자료에 따르면 현재 나우루 국적 선망선은 16척이다.

나우루, 바누아투로 국적을 변경한 선박 중 일부는 과거 파푸아뉴기니(PNG) 국적이었다. 따라서 PNG로부터의 수입이 80% 가까이 감소해 7,166톤에 그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물량 34%, 톤당 평균 금액이 4% 감소했다. 물량 기준으로 보면 2018년보다 낮은 수치이다. 미국과 솔로몬도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다.

반면, 키리바시, 세이셸, 중국, 인도네시아로 부터의 수입량은 각각 23%, 21%, 24%, 109% 증가했다. 일본으로 부터의 수입은 수입량이 49% 증가했으며 톤당 평균 금액도 24% 상승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이러한 일본의 수출 증가는 지난해 일본 어선들의 날개다랑어 어획이 매우 좋았기 때문이다.

한편, 몰디브와 마셜제도도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며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2월 2일자



2020년 4분기 태국 참치캔 수출 금감

지난해 총 수출량은 5% 증가

태국 가공업체의 지난해 참치캔 수출량은 총 55만 7,525톤으로 2019년 대비 5% 증가했으며 지난 5년 동안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참치캔 판매가 급증한 것이 참치캔 수출 확대를 이끌었다.

하지만 수요 급증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연말에 산산이 부서졌다.

지난해 수출량은 1분기에 지난해 보다 약간 증가했고 2분기에는 지난해 보다 2만 7천톤 증가, 3분기에는 약 2만톤 증가해 3분기 동안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 보다 11% 증가했다.

하지만 4분기에는 수요가 급감, 12만 1,000톤을 수출해 2018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흐름은 수입업자들이 참치캔을 2, 3분기 동안 충분히 비축했고 3분기 대부분을 창고 재고를 채우는 대신 판매에 집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태국 캔 가공업체들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2020년을 마무리했다.

평균 수출 CFR 가격은 모든 주요 시장에서 예외 없이 하락해 평균 1% 하락했다.

태국의 최대 고객인 미국이 태국 참치캔의 2020년 성장을 이끌었다. 2020년에 태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량은 총 13만 787톤으로 2019년 보다 25% 증가했으며 총 수출량의 24%를 차지했다.

미국이 태국에서 수입한 참치캔은 많은 양이 여러 미국 소매업체의 자체 브랜드(PL) chunk light 참치캔으로 팔렸다. 아울러 미국 소비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참치 제품 중 하나인 solid white 날개다랑어 제품도 상당량 수입되었다.

이집트로 향하는 참치캔 선적도 크게 증가하여 태국 전체 수출량의 10%를 차지했다.

이집트 수출 CFR 가격은 톤당 2,620 달러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이집트로 수출되는 참치캔의 품질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집트로 수출되는 물량 중 일부는 리비아와 같이 다른 인접 시장으로 재수출된다.

예멘과 칠레 수출도 각각 60%, 24% 증가했다.

주요 수출 대상국 중 남아프리카, UAE, 이스라엘, 호주, 리비아만이 2019년보다 수입량이 감소했다. 놀랍게도 태국 15대 수출 대상국에는 EU가 포함되지 않았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월 26일



컨테이너 부족으로 캔 가공업자 비용 급증 전 세계적 문제, 운임 12월 이후 급증

세계적인 컨테이너 공급 부족 현상으로 운임이 급등해 참치 수출업자들에게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참치캔을 운송하는데 사용되는 20피트 컨테이너가 부족하고 40피트 컨테이너는 심각하게 부족하다.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이러한 컨테이너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태국 참치산업협회 Chanin Chalisaraphong 회장은 운송이 쇠도하고 있다며 올해 1분기 참치 운송이 최소 지난해 1분기보다 5%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수출액이 지난해 770억 바트(25억 달러)에서 올해 800억 바트(26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컨테이너 부족 위기는 이러한 장밋빛 전망에 찬물을 뿌린다. 베트남에서 가장 큰 참치 가공 업체인 Hai Vuong Group의 오너인 Nguyen Xuan Nam은 현재 20피트 컨테이너 운임이 약 7,000~8,000 달러로 평상시 운임의 3~4배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평상시의 몇 배나 되는 운임을 감수하고 있지만 여전히

최종 제품을 운송할 컨테이너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른 주요 참치 가공업자는 지난해 11월에 비해 3배의 운임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화물을 가득 실은 20피트 컨테이너를 EU의 주요 항구에 해상 운송하는데 약 6,000 달러의 운임이 소요된다고 한다. 최종 운송 가격은 현재 캔 185g당 약 0.07 달러, 한 상자(case) 당 약 3.3 달러에 달한다. 그는 컨테이너 불균형이 회복되기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 시장에 참치캔을 공급하는 한 무역상은 지난해 말 이후 운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많은 참치 업계 참여자들이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에서 서방으로 운송되는 20피트 FCL(full container load) 운임은 일반적으로 700~1,000 달러 수준이다. 12월에 2,500~3,000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1월에는 4,700 ~5,200 달러로 급증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월 25일자

세이셸, 민간 산업을 위한 어류 가공 구역 확정 Ile du Port섬에 7만m²

세이셸 정부는 산업형 어류 가공 및 관련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지역의 중심에 어류 가공만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를 확정했다. 개인 투자자에게 할당할 토지는 세이셸의 주도(主島)인 Mahe섬에서 떨어져 있는 인공섬인 Ile du Port섬에 위치해 있으며 7만m²에 달한다. 수산부의 Roy Clarisse 특별고문은 어류 가공공장들이 들어설 해안가 인근 지역에 센터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Clarisse 특별고문은 『센터 건립을 통해 중앙 공용 냉동 창고 또는 공용 하수 처리 시설과 같은 공용 시설과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주요 가공 대상 어류는 참치이지만 잠재적으로 양식어류 가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서대서양에서 연간 40만톤의 참치가 선망선으로 어획되며 그 중 8만톤이 세이셸 EEZ에서 잡힌다. 총 어류 가공 능력은 개인 투자자들의 계획과 가공 방법에 달려있다.

Clarisse 특별고문은 분명 공장을 지원하는 보조 서비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ALLAfrica, 2021년 1월 18일자



日 신선 오징어 2020년 11월 어획 40% 감소한 3,800톤 냉동 오징어는 3.6배, 가격은 하락... 全漁連 집계

JF全漁連이 집계한 2020년 11월 일본 오징어 어획량(신선·냉동 포함)은 전년 동월 대비 27% 감소한 4,904톤이었다. 냉동 물은 기록적인 흥어였던 전년보다 어획량이 향상되어 3.6 배인 1,055톤을 기록했다.

반면 신선 물은 40% 감소한 3,849톤에 그쳤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으로 인해 음식점에서의 거래 침체 등으로 평균 kg당 가격은 냉동 물이 43% 하락한 730 엔, 신선 물이 12% 하락한 641 엔이었다.

신선 물은 주력 산지인 홋카이도가 83% 감소한 832톤으로 크게 떨어졌다.

산리쿠 지역은 2.2배인 2,582톤을 어획했으며 이 가운데 이와테현 쿠지·미야코·야마다가 86% 증가한 712톤, 미야기현 이시노 마키·오나가 4.8배인 987톤이었다. 동해 지역도 4.3배인 391톤으로 건

투했지만 홋카이도의 감소분 보충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냉동 물은 홋카이도에서 8배인 112톤을 어획했으며, 입항 시기가 지난해보다 빨라진 아오모리현 하치노 헤에서 6.8배인 334톤을 기록했다. 동해 지역은 2.6배인 608톤이며, 그 중 야마다가 5.9배인 184톤, 이시카와가 2.1배인 424톤이었다.

오징어 어획량은 2016년 6만 4,000톤을 기록한 이후 감소해 2017년 5만 4,000톤, 2018년 4만 2,000톤, 2019년 3만 3,000톤으로 부진이 이어졌다.

한편, 2020년 어획량은 전년을 웃도는 페이스로 추정된다. 2020년 1~11월 일본 전국 어획량은 3만 4,365톤으로 2019년의 연간 실적을 웃돌았다.

※ 기사 출처: 일간 수산경제신문 2021년 1월 22일자,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1월 25일자

일부 스페인 어선, 코로나로 포클랜드 출항 지연 적어도 5척에서 감염 사례 발생, 조업 영향 판단은 일러

포클랜드 제도에서 오징어를 조업하기 위해 스페인 갈라시아 비고에서 출항할 예정이었던 일부 어선이 선원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으로 출항 지연되었다.

코로나19 양성 선원은 30명 정도로 포클랜드 오징어 조업을 위해 몇 주 전에 비고에 입국한 외국인 선원들이 대부분이다. 업계 소식통은 적어도 5척의 트롤선에서 양성 사례가 나왔으며 한 선박에서는 19명이 확진 되었다고 말했다.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다른 선박들은 포클랜드로 출항했다. 모든 선박은 스텐리에 도착하기 전에 세관과 이민국에 건강 상태 신고(health declarations)를 해야 한다. 비고에서 스텐리까지 항해하는 데는 21~23일이 소요된다. 조업 시즌은 2월 24일로 아직 조업에 큰 영향이 있을지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

* 기사 출처: MercoPress, 2021년 1월 21일



타이 유니온, 참치뼈로 만든 참치 분말 출시 최근 참치 일반 가공 외 분야 확대에 속도

Thai Union Ingredients(TUI)사는 칼슘이 풍부한 참치뼈 분말 신제품 'UniQtmBone'을 출시했다.

UniQtmBone은 황백색의 분말로 무미(neutral taste)하고 입자가 작으며 캡슐, 정제(tablets), 식품 형태로 섭취하기 적합하다. 애완동물 사료 첨가제로도 사용할 수 있다. 회사 제품 정보에 따르면 이 제품에는 칼슘과 인이 2:1 비율로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사람의 뼈와 치아에 존재하는 무기질 성분과 동일한 형태이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콜라겐도 17% 포함하고 있다. 제품에 포함된 칼슘은 인체에 쉽게 흡수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신제품은 다른 첨가물을 첨가하지 않았으며 신선하고 식용 가능한 참치 원료를 사용했다. 제품 생산은 태국 Songkla주에 위치한 신규 공장에서 이루어진다.

TUI사의 모회사인 Thai Union Group(TU)은 지난해 9월 16일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식품, 영양,

개호 제품을 취급하는 자회사를 통해 사업 부문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후 지난해 10월에 TU사는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BevTech Co Ltd와 새로운 합작 회사인 Food and Beverage United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이 합작회사는 영양 상 이점이 있는 식품과 음료 제품을 생산, 유통할 계획이다.

올해 1월 7일에는 또 다른 합작회사의 설립이 알려졌다. TUI사와 바이오 제약 회사인 Interpharma-ZEAvita사가 힘을 합쳐 보조 식품을 취급할 새로운 합작 회사를 설립했다.

TU는 보도자료에서 참치 폐기물로 만드는 제품의 확대는 '폐기물을 줄이고 귀중한 해양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참치의 모든 부분을 사용하려는 회사 목표의 일환이라고 알렸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월 15일자

아르헨티나 채낚기선, 오징어 조업 시즌 시작 1월 16일부터 위도 44도 이남에서

아르헨티나 연방수산위원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오징어 조업 시즌이 1월 16일부터 위도 44도 이남에서 시작된다. 이같은 결정은 『오지어 채낚기선이 아르헨티나짧은지느러미오징어 종(Illlex argentinus) 중 남부 과타고니아군(South Patagonic Stock)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봄 산란군(Spring Spawning Stock)을 조업할 수 있다』는 아르헨티나 국가 연구 기관인 Inidep의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일렉스오징어 속(Illlex) 아르헨티나짧은지느러미오징어 종(Illlex argentinus)은 계절과 산란 지역에 따라 유기체 그룹으로 구분된다. 남부 과타고니아군과 봄 산란군은 아르헨티나짧은지느러미오징어 종의 주요 군이다.

공식 양륙 통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2020년 조업 시즌에 총 14만 5,000톤의 오징어를 어획해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 기사 출처: MercoPress, 2021년 1월 14일



중국 불법 오징어 조업 북한 수역에서 감축 미국 단체 분석 2020년 코로나 재난으로 일시적 관측

미국의 IT 기업인 구글의 협력을 받고 있는 미국 민간 비영리 단체(NPO)인 글로벌 피싱 위치(GFW)는 1월 21일 지난해 중국 어선에 의한 북한 수역에서의 오징어 불법 어획이 재작년까지보다 감축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에 10만톤 이상이었던 어획량이 2020년 5만톤 이상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 선박의 러시아 해역 불법 조업도 줄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같은 감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감시, 관리 및 감시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GFW를 포함한 연구팀은 인공위성으로 어선의 광학 화상, 집어등 화상, 레이더 등의 정보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정보를 조합해 불법 어선의 움직임을 찾아낸다.

지난해 논문 등으로 중국 어선이 북한 수역에서 오징어를 불법 어획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북한 수역의 중국 어획량은 2017년 이후 매년 일본의 살오징어 총 어획량을 웃도는 10만 1,000톤, 6만 3,000톤, 7만 7,000톤으로 추정되며 자원에 대한 위협이라는 경종을 울렸다. 1월 21일 현재 2020년 북한 수역에서의 살오징어 중국 어획량은 전년보다 30% 적은 5만 3,000톤으로 추정된다. 특히 주 어기인 9~11월의 어선 수는 전년 대비 반감했다고 추산했다.

관련 업체 등에 따르면 작년 중국 선박이 코로나 문체 등으로 북한으로의 입어 협상을 정리하고, 공해와 동중국해에서 조업하는 것으로 돌아섰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에서 조업하는 중국 선박은 중국 당국의 관할 밖에서 조업하는 무등록·무국적·무허가 선박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과 북한 양국의 허가를 받은 조업이라면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①북한으로부터의 수산물 입수 ②유엔 승인 없이 북한과의 합작 기업 활동 ③북한에서의 어업권 양도·매입 등에 해당, 모두 불법 어업이다.

수산 연구·교육 기구 등에 따르면 일본 근해 살오징어 개체군 2개의 총 자원량은 2014년에 253만톤이었지만 2020년은 총 87만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일본의 살오징어 어획량은 3만 3,000톤으로 현행 통계 사상 최저다. 이 기구 담당자에 따르면 최근 『산란해야 할 친어가 부족해 환경 조건이 나쁘지 않은 해에도 자원이 회복되기 어렵다』고 한다.

<러시아에서도 대폭 축소>

작년 논문에서는 대형 중국 어선에 쫓겨난 작은 북한 어선이 러시아 수역 조업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도 보여 불법이고 준비가 부실한 경우가 많은 북한 어민이 많은 사망 사고를 당한 것으로 분석했다.

1월 21일 발표로는 2020년 조업 일수가 전년 대비 95% 줄었다고 본다. 실제로 2020년 북한의 유령(생존자가 타고 있지 않은) 어선이 일본으로 표류한 경우가 거의 없었고, 코로나를 두려워 한 북한 당국이 해외 조업을 엄격하게 규제했다는 보도도 곁들였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1월 22일자



포클랜드, ITQ 관련 제도 변경 추진

ITQ 자격 기준 변경, 총족 시 기존 남은 10년 권한 25년으로

포클랜드 제도 정부는 기존 개별양도쿼터(ITQ) 보유자의 권한이 2031년에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10년 동안 유효하지만 향후 25년의 권한을 새로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도록 ITQ 제도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25년의 어업 권한을 받기 위해서는 합작 어업회사 지분 중 최소 51% 이상을 포클랜드 국민이 소유(현재 조건보다 최소 25.1% 상향)해야 하는 등 새로운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포클랜드 제도 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신규 조건은 포클랜드 제도 수산업의 미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각 ITQ 보유자는 포클랜드 제도 정부(FIG)와 포클랜드 제도 어업 협회(FIFCA)가 수산업의 미래를 지탱하기 위해 체결한 수산업 합의(Fisheries Accord)를 이행하는데 어떻게 기여할지를 제시하

는 개별 행동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수산업 합의는 다음과 같은 5가지가 주축이다. 수산 부문의 지속 가능한 관리 및 성공적인 수행, 건강한 해양 보장, 환경 친화적인(caring for our environment), 포클랜드 국민 보호 및 지역사회에 친화적인(caring for the community).

이러한 제도 변경은 포클랜드 제도 어업 기업들에게 장기 투자에 필요한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새로 확장된 권한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에 실패한 보유자는 기존 ITQ 권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포클랜드 정부는 현재 관련 내용이 담긴 법률 초안을 작성 중이며 동 법안을 2021년 후반(later in 2021)에 공포할 예정이다.

* 기사 출처: FiskerForum, 2021년 1월 20일자





러 명태어업자협회 및 회원사, 경쟁 위반 혐의 RFC 퇴출 관련 경쟁 위반 의심

러시아 반독점 규제 기관인 FAS(Federal Antimonopoly Service)는 반경쟁적 행위로 의심되는 명태어업자협회(PCA)와 여러 회원사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 사건을 제기한 당사자는 작년 말에 PCA에서 퇴출된 후 PCA와 충돌해온 Russian Fishery Company(RFC)사이다. 러시아 언론사인 Vedomosti는 FAS에 따르면 PCA는 경쟁을 규제하는 러시아 연방법 제11조의 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조항은 기업 또는 협회가 기업의 시장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금지한다.

PCA 외에도 이 사건으로 조사 받는 기업은 Ozernovsky Fish Canning Plant No. 55, Nakhodka Active Marine Base, Sakhalinrybsoyuz, Okeanrybflot, Sofco, Sakhalin Island, Dalryba, Poseydon, Kuril Fisherman, Mercury, Poronay, New World, Transit, Rybolovetskiy kolhoz, Tralflot, Pilenga, Preobrazhenskaya Pacific Fleet Base, Pacific Fishery Company이다.

RFC의 이러한 문제 제기는 협회에서 RFC를 퇴출한 문제로 협회와의 분쟁이 계속되며 악화되는데 따른 것이다. 갈등은 RFC가 러시아 정부에 국가 어업 부문에 대한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도록 촉구하면서 지난 여름부터 시작되었다. 비평가들은 RFC가 제안한 개혁이 추진된다면 어업권 재분배에 있어 자본이 풍부한 회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자금 조달이 용의치 않은 기업들은 쿼터를 박탈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PCA는 RFC의 제안이 전반적인 협회 회원에게 해를 끼친다는 결론을 내리고 RFC의 자회사들을 조직에서 축출하기로 결정했다.

PCA가 해양관리협의회(MSC)의 클라이언트 그룹임으로 RFC의 MSC 인증은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 이후 RFC는 소송에서 승소하며 올해 1월에 MSC 인증 사용 권리를 일시적으로 되찾았다. RFC는 PCA 외부에서 MSC 인증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1년 2월 8일자

러시아 어업 회사 NBAMR, Okeanrybflot 합병 소식 사실이라면 업계 최대 쿼터 보유 회사 탄생

러시아 극동 어업 회사인 Nakhodka Active Marine Base(NBAMR)사와 Okeanrybflot사가 합병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포트가 정확하다면 두 회사의 합병으로 연간 46만톤 이상의 어업권을 보유한 업계 최대 쿼터 보유 회사가 탄생한다.

비즈니스 신문 Kommersant는 Okeanrybflot사가 러시아 합자회사에 요구되는 공개 절차로 올해 1월에 공개한 문서를 인용하며 2020년 12월부터 Okeanrybflot사를 『NBAMR사를 보유한 동일한 수혜자(beneficiaries)』가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추가 세부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Kommersant는 합병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한 업계 익명 정보원의 말을 인용했다. 정보원은 NBAMR사가 Okeanrybflot사의 사업 일부만을 매입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합병이 확정되면 약 46만 4,000톤의 쿼터를 보유한 대기업이 탄생한다. Forbes 잡지에 따르면 NBAMR사의 연간 쿼터는 18만 1,000톤이며 Okeanrybflot사는 28만 2,800톤이라고 한다. 현재 러시아에서 쿼터 보유 상위 기업은 NOREBO, Hidrostroy, Russian Fishery Company 순으로 각각 43만톤, 41만톤, 33만톤을 보유하고 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1년 2월 4일자



日本水産 봄·여름 신상품, 생선 파워를 활용 「속근 단백질」 시리즈 전개

日本水産의 봄·여름 신상품은 생선 파워를 활용한 「속근 단백질」 시리즈를 전개한다.

양질의 명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상품을 모아 매장 판촉물이나 프로모션으로 매장 전체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양관점 수산 매장에서 호조인 냉동 냉장(FC) 코너용 상품과 ‘집 안에 틀어박혀 지내기’ 수요 확대에 대응해 안주 제품을 프라이팬으로 손쉽게 요리할 수 있는 키트 제품도 발매한다. 명태를 다진 형태로 가공한 「MSC 생선 민스」를 사용한 제품도 강화한다.

이 회사의 봄·여름 상품을 소개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와 함께 감염 예방 의식이 높아지고, 또한 외출 자속에 의한 운동 부족 우려가 확산되는 속에서 음식을 통한 건강 관리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日本水産은 명태가 가진 「속근 단백질」의 힘을 활용한 「속근 단백질」 시리즈에 주력한다. 속근 단백질은 명태의 민첩한 움직임의 근원이 되는 순발력을 발휘하는 속근 단백질이다. 이 시리즈는 제품 100g 당 8.1 그램 이상의 단백질을 함유, 끼니 당 4.5 그램 이상의 명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 생선 소시지 매장·일배품(日配品) 매장용으로는 「매일 먹자 속근 단백질 어묵」 「매일 먹자 어묵 일반」 「이 게 맛살」 등 9종을 출시해 총 10종을 라인업한다.

소비자 캠페인과 SNS에 의한 확산 등 4월 이후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계획하고 있다.

상품과는 별도로 속근 단백질 기능을 소구하는 CM도 예정하고 있다. 상온 식품 매장용이나 업소용 상품, 수산품도 전개해 시리즈 전체 17개 종류이다.

업소용 제품은 양관점 수산 매장에서 호조인 냉동 냉장(FC) 코너용 신상품을 투입한다. 소량의 기름만 사용해도 되는 프라이팬 조리가 가능한 수산프라이 「프라이팬으로 간편」 시리즈를 출시하여 확대되는 가정식 시장에 대응한다.



「FC 프라이팬에서 진수성찬 새우 튀김」은 대형의 인도네시아산 바나메이를 사용했다.

새우 본래의 맛을 추구해 간단한 양념으로 마무리했다. 꼬리 껍질을 제거해 먹기 쉽도록 하는 연구도 실시하고 있다. 「FC 프라이팬에 간편 흰살 생선 프라이」 「FC 프라이팬에 간편 오징어 링 프라이」 등 총 4종을 갖춘다.

상온 식품 매장용으로는 집술 증가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안주인 「안주로 즐기는 SABA 블랙페퍼 맛」 「안주로 즐기는 SABA 마늘 맛」을 발매한다.

인기맛 2종을 채용함과 동시에 일본산 고등어를 사용함으로써 코로나화 재난 속에서 요구되는 건강함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 통조림으로는 반찬과 안주로 매콤한 정어리 통조림인 「스루루 뚜껑 멀치(고추 한 병입)」을 제안한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2월 8일자



러시아, 미국 A시즌 조업 시작 코로나 제약 지속

<중국, 러시아 명태 선박 검역 강화조치, 여전>

러시아 어업자들은 그들이 잡을 어획물이 어디로 운송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1월 1일 A시즌 명태 조업을 시작했다. 현재 코로나19 검역 조치로 중국의 주요 항구인 칭다오와 다롄항에서 러시아 선박으로 이루어지는 수출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막혔다.

Norebo사의 Sergey Sennikov 부사장은 『칭다오 반입은 여전히 컨테이너에 실린 냉동 어류 제품을 운송하는 부분에는 열려 있지만 냉장 운송 선박에 실려 있는 제품은 하역이 허가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에는 중국 항구 상황 변화를 기다리며 명태 제품을 보관할 냉동 저장 시설이 부족하다. 중국 수출 문제로 인한 손실은 수천만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

러시아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명태 어획량은 120만톤, 그 중 28만톤이 러시아 국내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수산청에 따르면 1월 10일 현재 러시아 총 명태 어획량은 5만 7,900톤으로 지난해 동기 보다 22% 감소했다.

<알래스카 가공공장 코로나로 연이어 가공 중지>

Maruha Nichiro사가 소유한 Westward Seafoods사의 알래스카 명태 가공공장 Alyeska Seafoods가 코로나 확진 사례 발생으로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 코로나 발병은 1월 넷째 주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셋째 주에는 Trident Seafoods사가 소유한 알래스카 Akutan 지역 소재 명태 가공공장이 3주 동안 운영을 중단한다고 알려졌다.

아직 A시즌 초반으로 현재 공장 가동 문제가 필렛과 연육 생산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명란은 최고 품질의 명란이 과거 종종 A시즌 초부터 2월말까지 발견된 적 있어 곧 공장 가동이 시작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알래스카 어업자들 자발적 어기 연기>

알래스카만 명태 어업자들은 알을 밴 명태를 타겟으로 어획하기 위해 기존 어업 시작일 보다 2주 늦게 1월 20일부터 어업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1월 20, 21, 26일자, HOMER NEWS 2021년 1월 21일자

회원사 소식 및 정보 원고 접수

회원사 여러분에게 보다 알차고 참신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회원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각종 원고를 접수합니다. 회원사의 경조사, 사무실이전, 신제품 생산 등 각종 소식이나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제안 등을 아래 송부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는 적극 원양산업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우리 원양산업지를 알차게 꾸미는데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 소 :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6층(양재동, 삼호물산빌딩)
한국원양산업협회 홍보·마케팅지원센터(우편번호 : 06775)
- 팩스 : 02-589-1630/1631/○ e-mail 송부시 : kosfa@kosfa.org



RFC, 중국과 일본으로 명태 필렛 수출 확대 2022년에 아시아로 최소 5,000톤 필렛 공급 계획

Russian Fishery Company(RFC)는 중국과 일본에 명태 필렛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RFC는 H&G 제품의 공급량을 줄이고 필렛, 연육과 같이 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RFC는 2020년에 700톤의 필렛 중국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에 필렛을 수출하는 것은 당사가 처음이었다. 올해는 1,000톤 수출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추가로 2,500톤 계약은 거의 성사된 상황이다.

RFC는 일본으로도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1월에 처음으로 필렛 600톤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RFC는 2022년에 아시아 지역으로 명태 필렛을 최소 5,000톤 공급할 계획이다.

RFC의 전략 개발, 마케팅 영업 지원 이사인 Maxim Klyushin은 『RFC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비중을 크게 높이고 2차 냉동 제품(냉동 상태 가공 후 재 냉동) 생산에 사용되는 H&G 공급을 줄이며, 새로운 필렛 및 연육 시장 개발을 목표로 한다』

며 『2021년말까지 선상 냉동 필렛과 연육 생산에 사용되는 원어 비중을 총 어획량의 50%가 넘도록 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RFC는 국내 시장에서도 고차 가공제품 분야에 대한 존재감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2020년 러시아 시장에 필렛을 약 1,000톤 공급했으며 2021~2022년에는 매년 5,000톤을 더 공급할 계획이다. RFC는 올해부터 연육 생산을 시작해 올해 생산 목표는 4,000~5,000톤이다. 내년 생산 목표는 약 2만톤이다. 연육은 이 회사의 신조 슈퍼트롤선(11척 건조 계획)에서 선상 가공될 것이다. 각 선박은 필렛, 다진 어육, 연육 등 다양한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며 연간 최대 1만 5,000톤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슈퍼트롤선이 향후 연이어 투입될 계획으로 연육 생산량은 계속 증가할 예정이다. RFC는 작년 12월에 첫 번째 신조 슈퍼트롤선을 인도 받았다. 이 선박은 올해 A 시즌에 첫 조업을 시작한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1월 21일자

러시아 2020년 어획량 전년 대비 1% 증가한 497만톤 명태는 183만톤 어획

러시아 연방 수산청에 따르면 2020년 러시아 수산물 총 어획량은 497만톤으로 전년 대비 5만 7,400톤 증가(1.2% 증가)를 기록했다.

주요 해역별로는 극동 해역이 4.2% 증가한 357만톤이다. 어종별로는 명태가 6% 증가한 183만톤, 대구가 10.5% 증가한 17만 1,900톤, 넙치가 10.3% 증가한 9만 3,000톤, 태평양 청어가 6% 증가한 41만톤이었다. 북부 해역은 0.6% 감소한 49만 2,000톤이었다. 어종별은 대구가 3.8% 감소한 30만 5,500톤, 해덕은 15.4% 증가한 8만 8,000톤, 넙치는 1.5% 증가한 1만 2,900톤이었다. 발틱해는 6.2% 증

가한 8만 3,200톤이었다. 어종별로는 청어 목 스포랫(sprat) 11.8% 증가한 4만 5,100톤, 청어는 4.7% 증가한 2만 6,000톤이었다. 아조프·흑해는 8.2% 증가한 6만 8,500톤. 어종별로는 엔초비가 전년 수준인 3만 1,100톤, 스포랫(sprat)은 2% 증가한 1만 8,300톤. 카스피해는 9.4% 증가한 8만 1,300톤, 스포랫(sprat)은 4.7배인 1만 3,600톤이었다. 또한 러시아 해역 이외의 원양 어업으로 러시아 어선에 의한 2020년 어획량은 12.2% 감소한 62만 6,500톤이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1년 2월 4일자



NPFC 콩치 관리 강화 논의 2월 23일 ~ 25일에 웹 회의 개최

북태평양 공해상 어업 관리를 담당하는 북태평양 어업위원회(NPFC)는 2월 23일~25일 제 6차 회의를 웹상에서 갖는다.

공해에서의 콩치 어획량 상한 설정 등 콩치 자원 관리가 중심 의제이다. 일본은 공해에서의 어획 쿼터 축소를 제안하는 등 자원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자원 관리 강화는 2020년 콩치의 기록적인 흥어를 감안한 것이라고 한다.

2019년 제5차 회의에서는 2020년부터 국제적인 총 허용어획량(TAC) 관리를 실시하기로 해 공해 쿼

터는 33만톤이 되었다.

1월 20일~22일에는 NPFC 과학위원회 특별 회의가 웹상으로 열리며, 관계 각국·지역 과학자들이 콩치 자원 평가에 대해 의논한다.

일본 수산청 국제과에 따르면 일본은 과학위원회의 자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량을 제시할 방침이다.

제6회 연례회의는 2020년 6월에 홋카이도의 삿포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영향으로 연기되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월 15일자

마루하니 치로 콩치 통조림 가격 인상 4월 납품 분부터 적용 발표

마루하니 치로는 1월 20일 콩치 통조림 「콩치 구이」 등 4품목에 대해 4월 1일 납품 분부터 1캔 당 30엔의 가격 인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가격 인상 이유로 지난해 기록적인 흥어로 인해 조달 가격이 크게 올랐고, 생산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회사가 콩치 통조림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2년 연속이다.

지난 번에는 동 제품과 「月花콩치 짬」 등 9 품

목에 대해 1캔 당 10엔의 가격 인상을 실시했다. 이번에는 「콩치 구이」(100그램) 추천 소매 가격(모두 세금 별도)을 230 엔에서 260엔으로, 동 제품 3캔 포장을 690 엔에서 780엔으로 올렸다.

「기능성 표시 식품 저염 콩치 구이 N」과 「콩치 소금구이」(75그램) 추천 소매 가격은 230엔에서 260엔으로 정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1월 21일자



2020년 일본 해산물 지출액 5% 증가 일본 총무성 가계 조사 5년 만에 전년 상회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로 「집 안에 틀어 박혀 지내기」 소비가 활발했다. 일본 총무성의 가계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연간 해산물 지출액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7 만 7,341 엔이었다. 5년 만에 전년을 웃돌았다. 신선 어패류는 5% 증가했다. 염건 어패류는 4% 증가, 어육 연제품은 3% 증가했다. 많은 품목에서 지출금액, 수량 모두 전년을 넘어 섰다. 생선 지출액은 5% 증가했다. 참치가 4% 증가, 연어가 9% 증가, 새우가 9% 증가했다.

돔은 정부의 지원책에 힘입어 33% 증가로 신장되었다. 흥어였던 콩치는 27% 감소했다. 모든 회는 5% 감소로 부진했다. 조개류는 6% 증가했다. 가리비가 20% 증가, 굴은 1% 증가했다. 염건 어패류는 염장 연어가 2% 증가, 타라코가 3% 증가, 말린 전갱이가 4% 증가했다. 마른 멸치는 2% 감소했다. 집에서 식사 횟수가 늘어나면서 반찬이 될 것이

나 저장할 수 있는 것, 빠띠 호화(사치) 제품이 인기를 모았다. 생선 절임은 11% 증가, 해산물 통조림은 4% 증가했다. 장어는 장어구이가 27% 증가로 신장되었다. 1월 이후 계속 전년을 상회했다. 튀김 프라이는 1% 증가, 냉동조리식품은 12% 증가했다

외식 지출은 27% 감소했다. 식료품 전체는 0.3% 감소한 96만 2,373엔이었다. 집계 세대수는 7,504 세대.

<12월은 3% 증가>

2020년 12월 가구당 해산물 지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3% 증가한 1만 922 엔이었다. 11개월 연속 전년보다 증가했다. 감염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송년회와 귀성을 자제하는 연말이었다.

신선 어패류는 4% 증가했다. 연어와 돔, 부리를 비롯해 연말 상품인 게도 전년 대비 5% 증가했다. 어육 연제품은 4% 증가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2월 8일자

일본 2020년 수산 수출액 코로나로 20% 감소 농수성, 가리비, 부리 모두 30% 감소 발표

일본 농수성은 2월 5일 2020년 농림 수산물·식품의 수출 실적(잠정치)을 정리해 수산 부문 수출액이 전년 대비 21% 감소한 2,277억 엔이라고 발표했다. 주력인 진주가 76% 감소, 가리비가 30% 감소, 방어가 25% 감소했다. 농수성은 주요 원인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수요 감소를 꼽았다. 가장 침체가 눈에 띈 것은 진주로 현재 속보치에 따르면 2020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76% 감소한 84억 4,500만 엔이었다.

가리비는 30% 감소한 314억 4,600만 엔.

농림수산성 해외시장개척·식문화과는 『일본 국

내 어획량과 수출량은 예년대로였지만 중국과 미국 등의 생산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많았던 것으로 미국 등의 음식점이 코로나 재난으로 문을 닫으면서 시장에서 물건이 남아돌아 가격이 하락했다. 특히 홋카이도 산 대형 가리비는 미국에서의 단가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 고 말했다.

농림수산성 해외시장개척·식문화과는 『주로 미국 시장에서 신선 냉장 물은 초밥, 냉동 물은 일식 레스토랑의 데리야끼 등에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점 폐쇄의 후폭풍을 맞았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2월 8일자



[결산] 日本水産, 매출 감소, 이익 감소

2020년 4~12월기 연결 실적, 수산 사업은 시황 침체 등 영향

日本水産의 2020년 4~12월기 연결 실적은 매출이 감소하고, 이익도 감소했다. 수산 사업, 식품 사업의 매출이 감소되었다. 하지만 이익면에서는 수산사업은 대폭 이익이 감소한 반면, 식품사업은 이익 증가를 이뤄냈다.

물류 사업은 매출 및 이익이 증가했다. 수산 사업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2,020억 5,900만 엔, 영업 이익은 49.3% 감소한 53억 300만 엔이었다. 이 중 어로 사업은 매출 감소, 이익 감소였다. 일본 국내 전갱이, 방어 어획량이 저조했고, 어가도 약세를 보였다. 남미의 새끼리민테 어획은 견조했으나 남방 대구는 저조했다.

양식 사업은 매출 감소 및 이익 감소를 보였다. 국내 판매는 증가했어도 판매 가격이 하락했다.

참치 양식은 태풍에 의한 대량 폐사로 원가가 상승하게 되어 이익이 감소했다. 남미의 연어·송어는 판매가격의 하락에다 감소로 판매 수량이 감소했다.

가공 무역 사업은 매출 감소, 이익 감소를 보였다. 일본 국내, 북미, 유럽도 매출 감소, 이익 감소를 보였다. 식품 사업은 매출이 2.8% 감소한 2,489억 5,500만 엔, 영업 이익은 11% 증가한 109억 1,800만 엔이었다.

이 중 가공 사업의 매출은 감소했으나 이익은 증가했다. 일본 국내, 해외 모두 가정용 식품 판매가 견조한 추세를 보여 고전하는 업소용 식품을 커버해 이익이 증가 되었다. 칠드사업(0°C 내외의 저온냉장)은 매출 감소, 이익 감소였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2월 8일자

일본 유력 양판점, ‘뼈없는 생선’ ‘스시’ 강화 밀(meal) 키트도 취급 증가, 간편 조리품에 주목

일본 미나토신문이 연초에 일본 전국 주요 슈퍼, 생협 총 27개사(라이프 코퍼레이션은 수도권, 킨키권별로 응답, 답변 총수 28개)를 대상으로 한 수산 가공품 판매 설문 조사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취급을 늘리는 것은 ‘뼈없는 생선’이라는 응답 수가 21개로 최다였다.

편의성 높은 것이 소비자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전년도 동 앙케이트 조사에 이어 선두를 유지했다.

올해 설문 조사는 2위로 ‘스시’와 ‘밀(meal) 키트’가 각각 차지했다. 모두 최근 선어 판매장에서

판매 확대에 힘을 쓰는 양판점이 증가 경향에 있다고 한다. 올해도 두 아이템의 구색을 확충하는 등 해서 팔려는 양판점이 많은 것 같다. 소비자의 편리 니즈를 채우기 위해 「렌지 업 상품」 「생선 구이 조리 완제품」 「프라이팬 조리 품」 등을 늘릴 의향인 양판점도 눈에 띈다.

한편 「소금 간 연어」는 취급을 줄일 의향인 양판점이 비교적 많은 것 같았다. 원료 부족에 따른 시세 상승이 배경에 있는 것 같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1월 29일자



[결산] 極洋 매출 감소 이익 증가

2020년 4~12월기 연결 실적, 수산상사 10~12월 호조

極洋(이노우에 마코토 사장)의 2020년 4~12월기 연결 실적은 매출은 감소했으나 이익은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수산상사는 10~12월이 매출, 이익 모두 호조세를 보였고, 4월부터의 누계로는 매출 감소에도 큰폭의 이익을 쌓았다. 냉동식품은 매출 감소, 이익 감소, 가다랑어·참치는 매출 증가에도 손실을 계상했다. 상온 식품은 매출 증가, 이익 증가로 나타났다. 수산상사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한 942억 4,200만 엔, 영업 이익은 91.6% 증가한 28억 4,100만 엔이었다. 연말 판매 경쟁은 호조인 양관점 판매에 주력해 고가 상품인 새우, 게의 판매가 전년을 웃돌았다.

연어·송어, 가리비 등의 거래도 견조한 추세를 보여 10~12월 매출, 이익 모두 전년 동기를 웃돌았지만 상반기까지 북양 어류, 새우 등의 침체는 극복하지 못해 4~12월 매출은 전년 동기를 밀돌았다. 이익

은 연어·송어를 원료로 가공품 물동량이 증가해 이익률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전년 동기를 웃돌았다.

냉동식품 매출은 6.8% 감소한 614억 5,800만 엔, 영업 이익은 25.6% 감소한 7억 4,700만 엔이었다. 외식·업소용 수요 감소로 생선 토막이나 스시 종류 등의 매출이 감소했다. 운영 첫해인 태국 신공장의 수지도 영향을 주어 매출 감소, 이익 감소로 이어졌다.

가다랑어·참치는 매출이 2.2% 증가한 227억 9,400만 엔, 영업 손실이 6,900만 엔(전년 동기 1억 2,800만 엔 이익)이었다. 가공 및 판매 사업은 참치 가공품의 판매가 견조했다. 일본산 양식 참다랑어 사업은 집하 증가로 매출이 증가해 수지가 개선되었다.

한편, 해외 선망 사업은 가다랑어 어가 침체가 계속되고, 어획량도 감소했다. 참돔 양식 사업은 시세 하락으로 수지가 악화됐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2월 8일자

일본 수산물 재고 통계(20년 11월말 현재)

냉동 오징어 30% 증가한 1만 5,000톤, 냉동 콩치 40% 감소한 9,000톤

2020년 11월말 현재 일본의 전국 수산물 재고는 전년 동월 대비 6% 감소한 71만 6,982 톤이었다.

냉동 오징어 등이 늘어난 반면, 냉동 연어와 참치, 콩치 등은 밀돌았다.

냉동 오징어는 27% 증가한 1만 4,504톤. 냉동 연어는 14% 감소한 6만 2,057톤, 냉동 콩치는 39% 감소한 8,987톤이었다. 냉동 참치는 5% 감소한 3만 9,822톤으로, 그 중 눈다랑어는 41% 증가한 1만 3,029톤, 황다랑어는 45% 감소한

9,459톤이었다. 냉동 고등어는 16% 감소한 5만 2,240톤, 냉동 새우는 1% 감소한 5만 3,009톤, 냉동 어묵은 24% 감소한 3만 9,086톤이었다.

냉동 낙지는 5% 감소한 1만 4,368톤, 염장 연어·송어 알은 27% 감소한 4,424톤이었다.

* 전년 동월 대비는 조사 계속 냉동창고 만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전년 동월과 비교한 수치와는 다를 수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2월 4일자



일본, 정부 중점 연구 후보로 해양 자원 개발 거액 투자, 「문 샷(moon shot) 목표」

일본 정부가 큰 사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에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는 「문(moon) 샷(shot)형 연구 개발 제도」에서 수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 자원 활용이 새로운 목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일본 연안의 여러 지역이 각각의 풍토에 맞게 수산물과 에너지 등 해양 자원을 생산해 이를 바탕으로 자립적으로 경제를 꾸려가는 미래를 그리고 있다.

이 제도에서는 내각부가 각 분야 전문가의 제안 등을 바탕으로 어렵지만 달성 시 사회에 큰 효과를 주는 「문 샷(moon shot) 목표」를 정한다. 목표는 2040~2050년까지 어떤 일본 사회를 목표로 할 것인가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지난해는 '미이용 생물 기능 등의 풀 활용으로 전 지구적으로 낭비되지 않는 지속적인 식량 공급 산업을 창출' 등 7가지를 설

정했다. 이 사업 기금은 1,150억엔 이상이 준비되어 있으며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최대 10년 동안 최대한 지원한다.

현재 일본 정부는 또한 1~2개의 문 샷 목표 안을 모집 중이다. 129개 응모 가운데에서 과학 기술 진흥기구(JST)가 21개 후보를 선정해 1월 19일에 발표했다. 8~9월경에 새로운 목표를 채택, 건당 수억에서 수십억 엔의 예산을 투입한다.

현재 목표 후보로 선정된 이와테대학의 石村学志 준교수 등 연구팀은 「지역 해양자원이 지탱하는 사회경제 다극화에 의한 신해양국가=일본 실현이 이끄는 기아와 빈곤 없는 전 세계로의 시동」이라는 목표 안을 내걸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2월 8일자

日 생 미끼용 고등어 90 엔, 고가권 유지 정어리 50 엔 중반에서 포함세

일본에서 생 미끼용 고등어 가격은 고가권을 유지하고 있다. 1월 중순 현재 홋카이도 산 1 마리 100~300g 사이즈는 88 엔 전후(규슈 시코쿠 양식업자 입고 가격, kg 가격).

재고 거래를 중심으로 포함에서 약 포함세를 보이고 있다. 치바 조시産은 통조림, 생선 토막용 구매가 중심으로 미끼용 출회는 적고, 스폿 가격으로 100g대의 소형어가 87엔이다. 규슈산은 200~400g 사이즈가 95엔 전후, 100g대는 90엔 중반에서 횡보중이다.

정어리 류는 이와테, 미야기현 산리쿠産의 20~50 그램 사이즈가 59~56엔으로 약 포함세다. 규슈産 40 그램 사이즈 정도의 작은 정어리(혼입)가 56~52엔으로 포함세다.

멸치는 아이치현과 간사이産 6~8cm 사이즈가 51~50엔이다.

전갱이는 규슈産의 20~30g 사이즈의 소형어가 스폿 가격으로 60 엔대 전반이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1월 22일자



일본 수산청 TAC 7개 어종 새로운 관리 대개는 올봄 무렵 전환 예정

명태와 오징어의 2021년 어기(2021년 4월~2022년 3월)의 총 허용어획량(TAC) 안을 수산 정책 심의회(水政審)가 승인한 데 따라 TAC 관리 8개 어종 중 대개를 제외한 7개 어종이 개정 어업법 하에서 최대 지속생산량(MSY)을 목표로 하는 자원관리로 이행된다.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대개는 3, 4월 경에 수산 정책 심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2021년도 TAC 대상 어종은 콩치, 전갱이, 고등어류(참고등어, 망치 고등어), 정어리, 오징어, 명태, 태평양 참다랑어, 대개 등 8개 어종이다. 과거 일본의 어업 관리에는 어업인의 재량이 크고 과학적으로 볼 때 관리 소홀(과잉어획)로 감소했던 자원이 다수 있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자원 관리를 행정의 책무로 자리매김해 중요한 어종을 TAC 관리 대상으로 추가했다. 8개 어종 외에 2023년도까지 새롭게 15개 어종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

수산 정책 심의회에서 승인된 명태의 2021년 어기 TAC는 2020년 당초 쿼터 대비 13% 증가(어기

중 개정 후 대비 8% 증가)한 25만 3,900톤, 수명이 짧은 오징어는 잠정적으로 2020년 어기와 같은 양인 5만 7,000이 되었다. 명태 중 상대적으로 자원이 안정된 태평양 계군의 TAC는 19% 증가한 17만톤으로 증가했다. 2023년 어기까지 3년간 17만톤으로 고정해 2024년 어기 이후 어획 페이스를 나타내는 안전 계수(β)를 0.9로 하는 시나리오를 채택했다.

자원이 부족해 자원 재건 계획 대상이 되는 동해 북부 계군은 10년 후의 목표를 잠정 관리 기준치(천어량 17.1만톤)로 18% 증가한 7,900톤(전 어기 TAC 미이용 분을 당초 쿼터의 5%를 상한으로 이월 가능)이 되었다. 오호츠크해 남부는 2020년 어기의 당초 쿼터 대비 2% 증가(어기 중 개정 후 대비 14% 감소)한 5만 6,000톤, 쿠나시르 해협은 전년과 동일한 수량인 2만톤이 되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1월 29일자, 일간 수산경제신문 2021년 1월 27일자

「시푸드 쇼 오사카」 행사 연기

대일본수산회 3월 17, 18일 개최

대일본수산회(시라스 도시로 회장)는 2월 24일~ 25일에 예정되어 있던 제18회 「시푸드 쇼 오사카」 를 3월 17일, 18일로 연기한다. 사무국의 엑서비션 테크놀로지스가 1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동 전시회는 서일본 최대의 수산 박람회다. 아시아 태평양 트레이드 센터(오사카시)의 ATC 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

스 감염 확대 영향으로 연기를 결정했다. 참가 업체 모집은 2월 26일까지 연장한다.

사무국에 따르면 현재 참가 예정자는 참가 의향을 보여온 곳도 포함해 300 곳으로 사무국이 메일로 연기 취지를 알리고 있다. 이번 연기 결정에 따른 취소 수수료는 없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월 19일자



태국 일식 신규 점포 최다

2020년 4,000개 점포 이상, 스시 점포 급증

일본 무역 진흥기구(일본 무역 진흥회)에 따르면 2020년 태국의 일식 레스토랑 수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4,094개 매장, 신규 출점은 1,183개 점포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다.

최근 일본 무역 진흥회가 이같이 발표했다. 2020년은 모든 지자체에서 일식점 영업을 확인 되고 일식 저변 확대를 보여주고 있다고 일본 무역 진흥기구는 밝혔다. 또한 폐점 및 휴업은 726개 점포로 사상 최다가 되었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사업 환경 악화도 요인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는 프랜차이즈 확대로 스시점이 크게 늘어나 정식이나 요정 등의 종합 일식점을 넘어 섰다. 지역별로는 방콕이 6% 증가한 2,105개 점포, 기타 지역은 21% 증가한 1,989개 점포다.

일식 문화의 침투와 가격대의 다양화에 따른 고객

층의 확대, 방콕 이외의 상업 시설이 증가함으로써 지방에서 새로운 점포가 늘었다.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는 청블리주는 2위, 3위인 논타부리주는 철도 정비 효과 등으로 51% 증가했다.

태국에서는 일본식 레스토랑 손님은 회복세에 있다고 하지만 대형 체인의 2020년 7~9월기 결산 실적은 전년 동기를 밀도는 기업이 증가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과 비즈니스 회식 감소에 의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프랜차이즈 출점에 의욕적인 경영자와 코로나의 영향으로 해고된 직원이 보상금 등을 밀천으로 프랜차이즈 출점을 하려는 희망자도 증가하는 등 향후 태국에서의 일식점이 회복 기초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1월 13일자

일본 어패류 수입 200만톤 이하로 떨어져

코로나 직격탄, 33년만

일본 재무성이 1월 21일 발표한 2020년 12월 무역속보에 따르면 일본이 작년 해외로부터 수입한 어패류(비식용 수산물 제외)는 190만톤여로 집계되어 200만톤이라는 큰 선이 마침내 무너졌다. 200만톤에 못미친 것은 188만톤이었던 1987년 이후 실로 33년만이다. 수입 금액도 1988년 이후 1조 7,000억 엔이 붕괴되고, 헤이세이 연간 실적이 거의 날아간 셈이다. 12월 수입 실적은 19만 4,249톤, 1,401억 9,700만 엔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수량은 4.6%, 금액은 9.4% 각각 감소했다.

예년처럼 최수요기를 맞이하여 조금 회복되었지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영향으로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2월도 마이너스가 계속된 채 1-12월 속보치가 확정, 연간 실적은 190만 2,150톤, 1조 3,663억 엔이 되었고 전년 실적에 비해서 수량은 8.6%, 금액은 15.1% 모두 크게 감소했다. 다만 어분, 밀(meal) 등 비식용 수산물은 연간 20만톤 정도 수입되고 있고 이를 합한 수산물 전체로는 210만톤 대는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던 축육류 수입도 한계에 달해 연간으로는 279만톤, 1조 4,310억 엔으로 수량은 5.4%, 금액은 7.1% 각각 전년을 하회했다. 축육류가 전년을 하회한 것은 5년만이다.

※ 기사 출처: 일간 수산경제신문 2021년 1월 22일자



日 수산가공품 정책 반찬과 센터 가공 강화 최다 미나토신문, 슈퍼 생협 통한 설문 조사 결과

일본 미나토신문이 연초에 일본 전국 주요 슈퍼, 생협 총 27개사(라이프 코퍼레이션은 수도권, 킨키 권별로 응답, 답변 총수 28개)를 대상으로 한 수산 가공품 판매 설문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품 정책은 전년 동 앙케이트 조사에 이어 ‘반찬·조리된 제품 강화’가 응답 수 18개로 최다였다.

지난해 3위였던 ‘센터에서 가공하는 제품을 강화’도 응답 수에서 상위에 올랐다. 올해도 신종 코로나 재난이 지속될 전망 속에서 가정식 증가에 따라 소비자의 조리 피로가 지적되었다.

전국의 유통 양관점 대부분은 소비자의 즉석식 간편 지향은 약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자사 센터 가공을 통한 제품의 효율적 생산 등을 도모할 의향도 엿보인다. 센터 가공 강화를 도모하는 양관점이 눈에 띄는 반면, ‘backyard에서 가공하는 제품을 강화’라는 응답 수는 2개에 그쳤다. 점포의 일손 부족 등이 배경으로 보인다.

또한 ‘backyard에서 가공하는 제품을 강화’라고 답했던 2개는 니가타현을 기반으로 하는 슈퍼 「原

信(카라신)」과 군마현이 기반인 슈퍼 「후렛세이(프레시)」 등을 운영하는 액시얼 리테일링(니가타현 나가오카시)과 라이프 코퍼레이션(오사카 본사, 도쿄 본사) 등 수도권 지역이다. 두 곳 모두 다른 점포와 수산 매장을 차별화하기 위해 굳이 ‘backyard 가공 강화’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같은 설문에서 2번째로 많았던 것은 ‘현지(원료와 제조) 상품 강화’로 응답 수는 14개다. 전년 5번째에서 세 단계 상승했다. 현지 메이커 상품의 구색을 확충하는 등 지역 주민의 요구를 심도 있게 파고드는 것 외에 상품의 수송 거리를 짧게 해 물류 효율화를 도모하는 목적도 있다고 보여진다.

수산 가공품 전반의 아이템(항목) 수(SKU)에 대해 물은 결과, ‘줄인다’는 응답 수는 8개에 불과한 반면 ‘늘린다’는 응답 수는 3개에 그쳤다.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스테디셀러 아이템 중심으로 라인업을 하는 양관점이 적지 않은 듯하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2월 2일자

일본 마루베니, 수산부 폐지, 4월 1일 기구 개혁 생선재료부를 신설

일본 대기업 상사인 마루베니는 4월 1일자로 기구 개혁을 단행한다.

식품본부를 식료제1본부와 식료제2본부로 분할한다. 식료본부의 식품사업부, 식품원료부, 음료원료부, 생선식재부를 식료제1본부 소속으로, 축산부, 곡물유량부를 식료제2본부로 두었다.

식료본부의 수산부를 폐지하고 생선식재부를 신설한다. 수산부에서 취급했었던 상재는 생선식재부로 이관한다. 식료본부의 식료 전략 기획실을 식료 제1전략 기획실과 식료 제2전략 기획실로 분할한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1월 29일자



실크 아이스로 선어 유통 혁명, 선도 유지에 니코 ‘해빙’

수사 가공 효율화 기자재 유통에 따라 다양한 기종

수산 식품 가공 장비 회사인 닛코(사토 카즈오 사장)의 연속식 실크(비단) 아이스 시스템 ‘해빙’은 해산물 고급 신선도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일본 국내외 도입 사례가 있으며, 2018년에는 '제7회 모노즈 쿠리(물건 만들기) 일본 대상'에서 내각 총리대신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실크 아이스는 해수(바닷물)를 냉각한 유통성이 있는 셔벗 모양 얼음이다. 얼음 입자는 수 마이크론의 섬세함으로 물고기를 손상시키지 않고 빙결점 바로 앞까지 급속히 차게 하기 때문에 결빙과 같은 효과가 있다. 장기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고, 국내 원거리 배송과 해외 수출 등 신선한 해산물 유통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고 한다. 어선 등 선박 탑재형, 가공 공장과 산지 시장의 육상 설치형이 있고, 용도, 사용량에 따라 7 기종을 라인업하고 있다.

선상이나 어항 등에서 바닷물을 퍼올려 냉해수로



부터 연속 생성하는 타입이 있고, 인공 염수로부터 간편하게 실크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소형 순환식은 소매점등에서의 이용을 상정한 콤팩트 타입이다.

▼ (주) 닛코 = 홋카이도 쿠시로시 鶴野(쓰루노) 110의 1 (T디) 0154 · 52 · 7101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월 19일자

식품 이물질 판별 AI로 가능 미나토 신문 2월 9일 웹 세미나 개최

미나토신문은 2월 9일 첫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제는 “장인처럼 불량품과 이물질 판별 식품 공장에서도 시작되었다! 인공 지능 활용”

야스카와 전기 그룹의 IT 기업 「YE DIGITAL」(구 야스카와 정보시스템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 마케팅 본부장을 초청해 이 회사가 판매하는 인공 지능(AI)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한 불량품 자동 판별 시스템에 대한 사례 연구를 넣어 함께 강연한다. 이 시스템은 딥 러닝(심층 학습)을 통해 인간의 감성에 가까운 기준으로 미묘한 색상 차이를 판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멸치 등 작은 물고기 원료에 혼입된 이물질 검출과 명란과 명란젓의 색상과 규격에 따라 원료와 제품을 판별할 수 있다. 참가비는 일인당 8,800 엔(세금 포함)이다. 신청은 2월 5일까지 아래 전용 웹 페이지에서 가능하다(선착순 50명). https://eventpay.jp/list_view/?shop_code=3371258028101454

문의는 미나토 신문 지사 사무실 또는 본사 ((전) 083 · 266 · 3214)로 하면 된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월 14일자



아이슬란드 어류 쿼터 12만 7천톤 정부 기관 권고, 자국 7만톤, 암컷 친어 선별 생산도 가능

아이슬란드 정부 기관인 해양담수 연구소(MFRI)는 2월 4일부로 2021년 아이슬란드 주변 해역의 어류 어획 쿼터(TAC)를 12만 7,300톤으로 하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이 TAC 중 노르웨이 등 다른 나라에 어획 쿼터를 배분하면 아이슬란드의 어획 쿼터는 7만톤 미만이며, 일정 어획 쿼터를 확보 할 수 있을 전망이어서 아이슬란드의 암컷 친어 선별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고 한다. 앞으로 연구소가 자원 조사를 계속하고, 실제 조업에 따른 자원 데이터를 확충해 TAC 권고를 상향할지가 초점이다.

1월 하순에 아이슬란드 민관 공동으로 실시한 대규모 자원 조사를 통해 일정량의 자원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연구소는 TAC 권고를 당초 2만 1,800톤에서 약 6배로 늘렸다. 지난해 12월 상순과 1월 상순, 중순의 조사는 해빙에 가로막히는 등 충분히 실시하지 못해 충분한 자원량을 확인할 수 없었다. 조사 때마다 TAC 권고는 더 나왔지만 5만, 6만톤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2021년 동 해역 시샤모 조업은 3년 연속 금어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단, 금어 이전인 2017년, 2018년의 TAC는 두 해 모두 30만톤 미만이었다. 이번 TAC 권고도 두 해의 3분의 1 정도에 그칠 적은 수준이다.

알, 암컷 친어 모두 재고는 적은 것으로 보이고,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훨씬 못미쳐 향후 전망은 '고가 불가피'라고 상사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상사 관계자에 따르면 아이슬란드의 2021년 TAC가 이번 권고인 7만톤 미만으로 확정될 경우 알 위주의 어획이 예상되고, 2021년의 알 용 어류 어획량은 5만~6만톤으로 예상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알의 수율을 10%로 가정하면 알 생산량은 계산상 5,000~6,000톤이다. 연 1만 5,000톤 전후로 되는 세계 총 수요의 3분의 1 정도에 그칠 모양이다.

2021년 알 용 이외의 어획량을 1만 5,000톤 안팎으로 가정하면 이 가운데 암컷 친어 선별 생산량은 30%인 4,000~5,000톤으로 보인다. 연 2만톤 내외로 하는 일본의 암컷 친어 시장의 4분의 1 정도에 그칠 셈이다.

아이슬란드에 이어 주산지인 노르웨이의 2021년의 시샤모 조업은 아이슬란드에 앞서 "현재 알 비율 10%의 소형어 중심의 어획으로 일본 시장에 적합하지 않다. 이 알 비율이 향후 12~13% 상승하면 일본으로도 향할 수 있다고 상사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양국 모두 향후 조업 양상과 알 비율에 주목하고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2월 9일자

Russian Fishery Company, 디지털선박운영센터 개설 비디오 감시 시스템 활용

Russian Fishery Company(RFC)는 현대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디지털선박운영센터(digital Fleet Operations Center, FOC)를 신설했다. 이 센터는 비디오 감시 시스템을 사용해 어업 및 생산 과정을 계획, 체계화, 제어한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회사가 생산 및 재무 지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나리오를 테스트하며 핵심 성과 지표를 보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1월 28일자



포클랜드 선사, 신조선 Falcon호 인수 2,000톤 미만, 75m

스페인 Nodosa 조선소에서 신조된 트롤선 Falcon호가 스탠리 소개 선주에게 전달되었다. Falcon호는 전장 75m, 폭 14m이다. 톤수는 포클랜드 수역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2,000톤 보다 약간 아래로 맞췄다. 톤수는 포클랜드 주요 허가 고려 사항이다.

Falcon호의 긴 갑판에는 2개의 트롤 레인이 설치되어 있으며 메인 트롤 윈치는 청결한 작업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트롤 갑판 위쪽(above the trawl deck)에 설치했다. 메인 윈치는 MS5/R8/1 수냉식으로 450kW 모터로 구동된다. head of the deck에는 250kW 모터가 장착된 4개의 CHM/R/53-20 sweepline 윈치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132kW gilsons와 codend 윈치 한 쌍, 2개의 11kW outhaul 윈치, 4개의 11kW backstrop lifts가 있다. 아울러 foredeck에는 두개의 anchor 윈치가 있다.

어획물은 선미의 해치로 떨어뜨려 창고에 보관한 후 가공을 위해 가공 갑판(factory deck)으로 보내



진다. Falcon호의 하루 냉동 가능 능력은 121톤이며 어창 용적은 1,715m³이다. 냉동을 위해 4대의 200kW Mycom 200VLD 설치되어 있다.

메인 엔진은 5220kW Wärtsilä 9L32로 한 쌍의 2500kW Marelli shaft 발전기와 함께 SVAL 850-66 reduction 기어박스를 통해 4개의 날이 있는 4,000mm 직경 Schottel CP 프로펠러를 구동한다. 선박 최고 속력은 16노트이며 bollard pull은 80톤이다.

* 기사 출처: FiskerForum, 2021년 1월 30일자

* 전문 용어 번역의 어려움으로 오역이 있을 수 있어 가급적 원문 참조

<https://fiskerforum.com/nodosa-delivers-falcon-for-falklands/>

알래스카만 대구 어업 MSC 인증 재획득

올해 1월 1일 소급 적용

알래스카만 태평양 대구 어업은 자원량 감소로 인해 중단된 이후 해양관리협회의(MSC) 인증을 회복했다.

인증은 올해 1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이는 어

업자가 올해 어획한 모든 대구를 MSC 인증으로 판매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1년 1월 27일자



아르헨티나 붉은 새우 2020년 20% 감소 4년만에 20만톤 이하

아르헨티나 농목어업부에 따르면 2020년 아르헨티나 붉은 새우(갈갈 새우) 어획량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17만 4,772톤이었다. 2017년에 처음으로 20만톤을 상회했던 이후 20만톤대에서 움직여 왔었지만 4년만에 20만톤 대를 하향한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 재난 영향으로 어획량이 크게 감소, 4년 전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어획량은 2월까지 전년 수준의 양상을 보였지만 3월 이후에는 전년을 크게 하회하는 달이 있었다.

신종 코로나 유행에 따라 생산자가 출어에 소극적이었던 데다 코로나 관련 출어 제한이 있었다고 한다.

<선동품 반감, 5만톤 조금 넘는 수준>

어장 해금 후 선주와 근로자의 교섭이 길어졌기 때문에 영해 해역에서의 선동 조업은 예년보다 약 2개월 늦은 7월 하순 이후에 시작되었다. 아르헨티나 전체 어획량은 6월 전년 동월 대비 80% 감소,

7월은 60% 감소했다.

조업 시작 시기 지연과 더불어 악천후에 의해 조업 일수가 감소했다. 2019년에 10만톤이었던 선동품 생산량은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이다. 5만 5,000톤 정도가 될 것이라는 상사 관계자 의견도 있다.

어획 사이즈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대형 L1(10/20 마리)와 L2(20/30 마리)가 중심으로 일본의 양판점에서 인기 있는 L3(30/40 마리)은 전체의 10% 정도였다.

일본이나 유럽 등 주요 소비국은 신형 코로나 재난에서도 수요가 있어서 국내 재고를 소화했다. 신물 거래 문의가 많아 현지 시세는 신물 시작 시점이 최저가가 되는 기조였다. 일본은 연간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한 1만 6,674톤을 아르헨티나에서 수입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2월 1일자

영국, 포클랜드에 백신 공급 3,000도스 공급

2월 1일 오전 1시 10분,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000도스를 실은 군용기가 영국 RAF Brize Norton을 출발했다.

영국의 이번 백신 제공은 영국이 포클랜드와 같은 해외 영토에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이뤄졌다.

포클랜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총 41건이었으며 사망자는 없었다.

포클랜드 제도 정부는 백신 운송이 완료되면 50대 이상, 중기 위험군(mid-term risk), 의료진을 포함한 방역 최전방 인력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두 번째 백신 운송은 이번 보다 작은 규모이며 몇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기사 출처: skynews, 2021년 2월 1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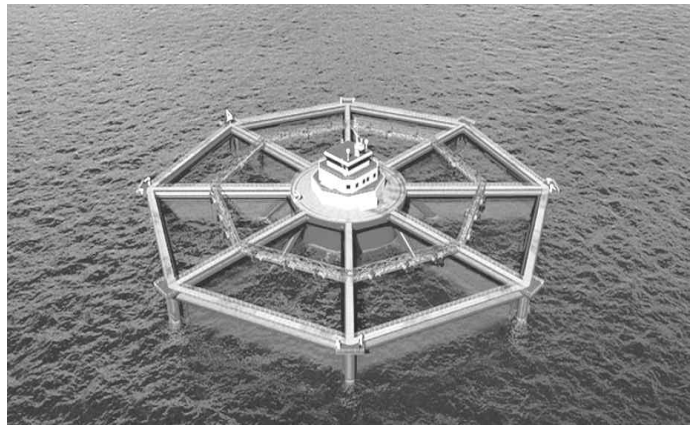


노르웨이 최초의 원양 양식 신청 사루마루社의 ‘스마트 피쉬 팜’

노르웨이 어업 장관은 1월 8일 노르웨이 양식 기업인 사루마루社가 국내 최초가 되는 원양에서의 양식업 라이선스 신청을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신청 해역에서의 양식 라이선스는 대서양 연어를 포함한 연간 1만 9,000톤이다.

이 회사는 트론델라그 근해에 새로 짓는 원양 양식 시스템 「스마트 피쉬 팜」을 설치할 계획이다.

노르웨이 어업부는 이 회사의 신청서 전체 78페이지를 홈페이지(HP)에 게시 중이며, 2월 초순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대서양 연어 연간 약2만톤>

이 회사에 따르면 스마트 피쉬 팜의 총 건조비는 약 15억 노르웨이 크로네(약 183억 엔)이며, 높이 70미터, 직경 160미터 규모이다.

이 회사가 2017년에 가동한 외해 양식 시스템 「오션 팜 1」(연간 생산 1만톤) 생산량의 2배에 해당한다. 설치 해역은 연안에서 약 50~110km 근해에 위치한다. 신 시스템은 반잠수형으로 높이 15미터의 파도를 견딜 수 있다고 한다.

내부를 8개의 생산 지역으로 나누어 약 300만 마리 약 2만톤(1마리 환산=약 6kg)의 대서양 연어를 양식할 계획이다. 양식 사업은 이 회사 자회사인 말리컬처社가 실시한다.

노르웨이 연안 양식 어장이 포화 상태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최근에는 노르웨이어업부가 양식 라이선스를 허가하지 않는 사업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라이선스 비용 상승도 지적되고 있다. 양식

해역에 대한 요구와 향후 원양 대형 양식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사루마루社는 『외해에서 양식하여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저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스템 운용은 노르웨이 산업과학 기술연구소(SINTEF)와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 해양 장비 제조업체 콩스버그社 등이 연계해 수행한다.

미나토신문 조사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7년 시점으로 외해 지역에서 연간 13만 3,000~13만 5,000톤의 연어를 생산하고 있다.

향후 원양·외해 양식으로 규모 확대를 도모하여 2025년까지 연간 20만톤으로 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1월 25일자





미국 새우 수입 20년 11월 전년 수준 6.7만톤 코로나 재난도 집 안에 틀어박혀 있기 수요 견인

미국 해양 대기청(NOAA)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1월 미국의 새우류(빵가루 있는 등 조제품 포함) 수입 수량은 전년 동월 수준인 6만 7,448톤이었다.

kg당 평균 단가는 1% 상승한 9.09 달러, 수입 금액은 1% 증가한 6억 1,341만 달러였다. 집안에 틀어박혀 있기 수요 증가로 인해 신형 코로나 재난 중에도 전년 수준의 수입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별 수입량은 인도네시아가 12% 증가한 1만 4,037톤이었고, 에콰도르가 47% 증가한 8,884톤, 베트남이 72% 증가한 7,111톤으로 신장되었다. 아르헨티나는 2.2배인 2,448톤이었다.

한편, 인도는 22% 감소한 2만 3,902톤, 멕시코가

31% 감소한 3,783톤으로 전년을 밑돌았다. 중국은 50% 감소한 585톤이었다. 종류별로는 냉동 껍질 있는 새우가 14% 감소한 2만 2,753톤, 냉동 껍질 벗긴 새우가 4% 감소한 2만 6,548톤이었다. 가공 품류는 34% 증가한 1만 8,147톤. 6월 이후 전년보다 30% 정도 많은 수량을 수입하고 있다.

1~11월 누계 수량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68만 1,344톤. 신종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 유럽과 일본 등 주요 소비국의 수입량이 전년을 밑도는 가운데 미국은 증가하고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1월 21일자

스웨덴 유럽 최대의 육상 양식 시설

2022년 가동 대서양 연어 연 10만톤 생산 목표

스웨덴 서부 소나타스시에 2022년 생산 개시를 목표로 순환여과육상양식시스템(RAS) 시설 건설이 진행된다. 75헥타르의 부지에 연 10만톤의 대서양 연어 생산을 목표로 한다.

완성되면 유럽 최대 규모의 RAS 시설이다. 노르웨이 수산 전문 금융 컨설팅 기업인 라이트 하우스社가 출자하여 설립한 퀄리티 연어 쏘나타스社(스웨덴)가 양식사업을 한다.

<2,000억 엔을 투자할 계획>

라이트 하우스社의 로이 호이아스 CEO에 따르면 사업비로 『170억~200억 스웨덴 크로나(약 2,100억~2,510억 엔)를 투자할 계획』 이라고

한다. 사업 추진에 스웨덴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라이트 하우스社는 수산 사료 대기업인 바이오마社(본사 덴마크)와 사료 제공 계약을 2020년 11월에 합의했다. 바이오마社가 12월 7일에 발표했다. RAS 시스템은 세계 최대의 아쿠아마오후社(본사 이스라엘) 시스템을 도입한다.

라이트 하우스社의 호이아스 CEO는 바이오마社와의 제휴에 대해 『지속 가능성과 혁신이 성공의 열쇠라고 비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마社를 선택했다』 고 설명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월 14일자



바다는

용혜원

밀물로 몰려드는 사람들과
썰물로 떠나는 사람들 사이에
해변은 언제나
만남이 되고
사랑이 되고
이별이 되어 왔다.

똑같은 곳에서
누구는 감격하고
누구는 슬퍼하고
누구는 떠나는가?

감격처럼 다가와서는
절망으로 부서지는 파도

누군가 말하여 주지 않아도
바다는
언제나 거기 그대로 살아 있다.





해양 수산 산업 사업화 신규과제 공모

유망기업 발굴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목적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KIMST)은 해양수산 분야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화 연구개발(R&D)의 신규과제 공모를 시작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해양수산 분야 사업화 연구 개발(R&D)을 통해 총 113개 기업을 지원해 1,35.4억원의 매출과 147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지금까지는 ‘미래해양산업 기술개발사업과 해양산업 수요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미 투자 유치를 완료한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 기술창업 스케일업(Scale-up) 사업’을 새로 추가해 신규 과제를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했는데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거나, 시험, 인증 등 시장 진입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해양산업 수요 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하면 된다.

공모는 기술의 고도화, 사업화와 현장애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성장 기술개발’과 시험, 인증, 신뢰성 평가 등을 지원 하는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로 나뉘어 진행된다.

신청을 하는 기관은 2월 10일부터 22일까지 KIMST R&D 통합관리시스템 (<http://ofris.kimst.re.kr/pms>)을 통해 원하는 기술개발 주제와 연구방법을 담은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사업공고 및 기타 자세

한 정보는 카카오톡 비즈니스채널 ‘해양산업 수요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민간투자를 유치했는데 사업화가 필요한 창업기업이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보유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은 ‘해양수산 기술창업 스케일업(Scale-up) 사업’에 지원하면 된다.

공모는 기술력과 사업화 역량이 검증된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창업 스케일업’과 기존 연구 성과를 고도화하여 사업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유망기술 스케일업’ 사업으로 나뉘어 공모가 진행된다.

기술 창업 스케일업에는 민간 투자를 받은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이, 유망기술 스케일업에는 연구개발 성과 보유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2월 15일부터 25일까지 KIMST R&D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2020년 연근해 어업생산량 전년보다 1.9% 늘어 어업생산 금액은 4조 3,655억원으로 10.3% 증가

해양수산부는 2020년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1.9% 증가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연근해 어업생산동향조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총 93만 2천톤으로 2019년의 91만 5천톤에 비해 1.9% 증가했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멸치 21만 7천톤, 고등어 7만 7천톤, 갈치 6만 6천톤, 오징어 5만 7천톤, 전갱이류 4만 6천톤, 참조기 4만 1천톤, 삼치류 3만 3천톤 등이었다. 어종별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참조기(59.4% ↑), 갈치(51.2% ↑), 멸치(26.3% ↑), 꽃게(25.3% ↑), 가자미류(20.6% ↑)는 생산량이 증가했고, 오징어, 전갱이류, 붉은대게, 삼치류, 청어 등은 전년 수준, 고등어(23.5% ↓), 아귀류(27.1% ↓)는 생산량이 감소했다. 대형 선망어업의 생산량

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편, 2020년 연근해 어업생산금액은 전년(3조 9,571억원) 보다 10.3% 증가한 4조 3,655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주요 어종별 생산금액은 오징어 5,017억원, 갈치 4,660억원, 멸치 3,379억원, 참조기 2,898억원, 꽃게 2,682억원, 고등어 1,636억원 등이었다.

어종별 생산금액의 증감추이를 보면 참조기(55.8% ↑), 갈치(54.0% ↑), 오징어(30.5% ↑), 고등어(26.2% ↑), 전갱이류(24.8% ↑), 꽃게(21.0% ↑)는 생산 금액이 증가했고, 멸치, 붉은대게, 아귀류, 가자미류, 삼치류 등은 전년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청어(34.9% ↓)는 소비 부진으로 생산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성수품 및 수입증가 활어, 통신판매 등 중점 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주요 단속 품목은 굴비, 돛류 등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활방어, 활가리비 등 수입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 활뱀장어, 마른꽂치(과메기), 활우렁쉥이 등 최근 5년간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들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및 통신판매업체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구매 확대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배달앱, 홈쇼핑, 지역쇼핑몰 등 통신판매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을 강화했다.



지난해 세계 해적사고 20% 증가 납치 피해 96%가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20년 해적사고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해적사고는 전년(162건) 대비 20.4% 증가한 195건이 발생했다. 납치피해 선원은 135명으로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지난해 외국적 어선에 승선하고 있던 우리 국민이 연이어 납치된 서아프리카 해역은 납치피해 선원의 96.3%인 130명이 납치되고, 3건의 선박 피랍 사건이 모두 이 해역에서 발생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인근 해역에서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해적사고 및 인명피해가 발생해 이 해역을 포함한 서아프리카 고위험 해역을 통항하는 우리 선사·선원들은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해양수산부가 정한 해적피해 예방 통항지

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한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적활동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아시아 해역에서도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2.6% 증가한 76건이 발생했다. 이는 2019년 4분기 이후 싱가포르 해협에서 생계형 해상강도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해상강도의 출현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 경계요원 배치 등 선사들의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반해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청해부대 및 연합해군의 활동과 무장한 해상특수경비요원의 승선 등에 힘입어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해적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미래산업 선도할 '예비 오션스타 기업'은 바로 우리! 해수부, 해양수산 유망기업 10개사 선정 및 지원 본격화

해양수산부는 미래 해양수산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예비 오션스타 기업' 10개사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선다고 2월 2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혁신성과 기술성을 갖춘 유망기업이 해양수산 분야를 선도하는 '오션스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비 오션스타 기업을 선정해 창업·투자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함께 지난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기업들의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창업·투자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기

업의 역량과 기술의 혁신성, 투자 가능성, 성장 잠재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해 성장 가능성이 큰 초기단계 기업 7곳과 매출액 증가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오션스타 기업으로의 도약 가능성이 큰 성장단계 기업 3곳이 선정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선정된 '2021 예비 오션스타 기업'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사업화 자금, 투자유치 활동 등 기업 수요에 맞춘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간담회 개최 등 추가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바닷속 고등어, 오징어 최첨단 장비로 파악

음향으로 수중 수산자원 현황 파악, 정책 수립에 활용

해양수산부는 올해 최첨단 조사연구장비를 활용한 음향 자원조사를 5회에 걸쳐 실시해 수중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주요 수산자원의 분포밀도와 현존량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고갈 위기에 대응해 2019년 「수산혁신 2030」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 수산자원을 해역별, 어종별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수산자원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주로 저층트롤어구를 이용해 해저면 부근에 서식하는 어류를 어획하는 방식으로 수산자원 조사를 시행해 왔기 때문에 저층이 아닌 수중에서 빠른 속도로 무리지어 이동하는 고등어나 살오징어 같은 중층성 수산자원의 분포밀도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 취향한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과학 조사선인 ‘탐구 23호’를 활용해 올해 더욱 정밀한 음향자원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조사는 3월 초를 시작으로 4, 7, 9, 10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과학어군탐지기’를 통해 발신하는 음파가 바닷속 어류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신호를 통해 어종별 분포밀도를 확인하고 ‘딥비전(Deep Vision)’ 장치로 영상을 촬영해 어종을 식별하게 된다.

또한 음향 탐지나 영상 촬영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유전학적 분석 연구를 함께 병행한다. 이 연구 방법은 해당 어군이 있는 수심의 해수를 채취해서 유전자를 분석해 어종을 판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들이 즐겨먹는 수산물인 고등어와 살오징어 등이 이동하는 해역을 따라 음향 자원조사를 추진, 어종별 음향 신호를 분석하고, 어종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의 음향 특성값을 추출해 계절별, 해역별 분포밀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조사선은 이동하는 수산자원의 경로를 따라 연속적으로 조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수직적인 층별 분포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 설 물가안정 위해 수산물 10,879톤 공급

주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정부비축 수산물 할인 판매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비축 수산물 6종(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10,879톤을 시장에 공급한다.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8,701톤, 고등어 297톤, 오징어 696톤, 갈치 484톤, 참조기 622톤, 마른멸치 79톤으로 해양수산부는 방출기간 동안 가격 변동 상황과 수급여건을 고려해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비축 수산물은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 대형유통업체, 홈쇼핑에 우선 공급하며, 남은 물량은 도매시장이나 전자입찰(B2B)로 배정할 계획이다. 비축물 방출은 지난 1월 18일부터 시작되었다.

정부 비축 수산물은 시중 가격보다 약 10~30% 낮은 가격으로 공급된다.



자원회복 위해 오징어를 정해진 만큼만 잡아주세요 1월부터 근해자망을 대상으로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제도 실시

해양수산부는 감소하고 있는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근해자망에도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적용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연근해 오징어 어획량은 2000년도 연간 22만 6천톤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최근 3년간은 어획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자원 관리를 위해 현재 근해 채낚기,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근해자망은 그간 주로 참조기, 병어, 갈치, 가자미 등을 어획해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오징어 가격 상승으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오징어를 어획하기 시작하면서 어획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업종 간 경쟁조업도 심화됨에 따라 근해자망에 대한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자원 조사 평가와

더불어 어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2021년 제1회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해자망에 대한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통상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실시되나 오징어 자원 관리를 위해 근해자망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적용이 시급한 만큼 일정을 당겨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즉시 실시하고, 올해 7월부터는 다른 업종의 조업기간과 맞추어 7월부터 다음해 6까지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근해자망 1년간 총허용어획량(TAC) 할당량은 총 3,148톤으로 시·도 배분량 2,648톤에 유보량 500톤을 포함해 설정했다. 우선 6개월간 실시되기 때문에 1년치 시·도 배분량인 2,648톤에서 일할 계산해 각 지역에 배분하고, 유보량 500톤은 비의도적 혼획, 할당초과 등에 대비해 활용할 계획이다.

회원사 소식 및 정보 원고 접수

회원사 여러분에게 보다 알차고 참신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회원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각종 원고를 접수합니다. 회원사의 경조사, 사무실이전, 신제품 생산 등 각종 소식이나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제안 등을 아래 송부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는 적극 원양산업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우리 원양산업을 알게 꾸미는데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 소 :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6층(양재동, 삼호물산빌딩)
한국원양산업협회 홍보·마케팅지원센터(우편번호 : 06775)
- 팩스 : 02-589-1630/1631/○ e-mail 송부시 : kosfa@kosfa.org



2021년 근해어선 감척 대상 업종 확대

멸치권현망·근해통발수협 어업인 단체 요청 수용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근해어선 감척대상에 ‘기선권현망어업(멸치잡이)’ 및 ‘근해장어통발어업’ 2개 업종을 추가하고,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관할 시·도를 통해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변화와 수산자원 고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근해어업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한 이래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근해연승 등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과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어업 갈등 경감이 필요한 업종

등 10개 업종 105척을 감척하는 올해 시행계획을 마련해 지난해 11월에 발표했다.

그러나 멸치권현망 및 근해통발수협에서 수산자원 감소와 소비, 수출 부진 및 경영 악화에 따른 어려움으로 감척 대상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1년 근해어선 감척계획을 변경했다. 변경 계획에는 기선권현망어업 5개 선단(25척)이 새롭게 추가되고 근해통발어업 대신 근해장어통발어업 5척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근해현망어업도 기존 4척에서 5척으로 1척이 추가되었다.

< 2021년 근해어선 감척시행계획 변경내역 >

대상 업종	감척 척수		감척 사유
	당 초	변경	
합계	10개 업종 105척	11개 업종 131척	
근해연승	24척	24척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EEZ) 입어 제한 및 수산자원 회복
근해채낚기	4척	4척	
서남해구외끌이중형기저	3척	3척	
대형트롤	8척	8척	오징어 자원 회복
동해구중형트롤	2척	2척	
근해자망	20척	20척	
근해안강망	5척	5척	연안 수산자원 회복 어업갈등 경감
소형선망	10선단 (30척)	10선단 (30척)	
근해통발	5척	-	
근해장어통발	-	5척	
기선권현망	-	5선단 (25척)	
근해형망	4척	5척	감척불응 수용

* 감척어선 척수는 예산소요 및 직권감척 불응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설정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서별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회장	윤명길	589-1600	
진무	이동욱	589-1602	경영지원본부장
전무	최경삼	589-1603	해외협력본부장
비서(주임)	조한술	589-1601	비서, 출납업무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경영지원본부	기획총무부	오재경 이사	총괄
		강성현 부장	총무, 회계
		박설진 과장	회계경리, 운영예산
		공길웅 과장	기획자금, 생산통계
	조성환 과장	사무관리, 차량운영	
회원지원부	이성재 이사	총괄	
	소기동 부장	노사, 선원	
	김효상 과장	무역제도, 수출통계	
홍보마케팅지원센터	김현태 이사	총괄	
	김영수 과장	홍보·마케팅지원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 1부	신현애 이사	총괄
		최봉준 대리	국제협력
		백상진 사원	참치선망·연승
	해외협력 2부	진호정 부장	총괄
	조성주 과장	복양, 공지	
	최동환 주임	오징어, 기타트롤	
부산지부	-	이형균 이사	총괄
		김현애 과장	확인업무(수출,반입등)
	공인계량소	이영두 팀장	차량계량
	이동주 팀장	차량계량	

해외수산협력센터(세종)	센터장실	권현욱 센터장	044-868-7360	협력센터 총괄	국제협상 지원팀	원태훈 전문관	044-868-7831	일반/지역수산기구 對 일본 업무
	기획운영팀	이희진 팀장	044-868-7834	행정총괄, 명예수산물 OFIS, 해외투자, 행정	김선경 전문관	044-868-7833		
	국제협상 지원팀	양재걸 전문관	044-868-7364		일반/지역수산기구	해외진출 지원팀	서규혁 행정관	044-868-7836
					윤유정 행정관	044-868-7838	통계, 협의회	

■ 협회 홈페이지 : www.kosfa.org ■ 팩스번호(서울) : 02-589-1630/1, (부산지부) : 051-253-3392, (해외수산협력센터) : 044-868-7840

명예해양수산물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사모아	오시영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피지	김종태	679-330-7188 ckpfj@naver.com
페루	이호상	51-1-454-6394 asia@asiamaritime.com
인도네시아	이재원	62-21-8660-6278 imsindo@hanmail.net
가나	이윤홍	233-22-300772 skshipafrica@yahoo.com
세네갈	김점봉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64-3-344-1617 seajho@xtra.co.nz
미얀마	변경대	95-92-6204-1339 kevinbyun61@naver.com
남아공모잠비크	정연국	27-71-285-4131(+82-10-5353-7135) ygieong21@naver.com

해외협력자문위원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남아공	조창원	27-21-447-1634/1515 saka0505@naver.com
수리남	박권현	597-42-2185 donghee_sur@yahoo.co.kr

원양산업
제1130호

발행 : 2021년 2월 15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 서울라-9183호 / 간별 : 월간

발행처 특수 한국원양산업협회
 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양재동, 삼호물산B/D A동 6층)

발행인 윤명길
편집인